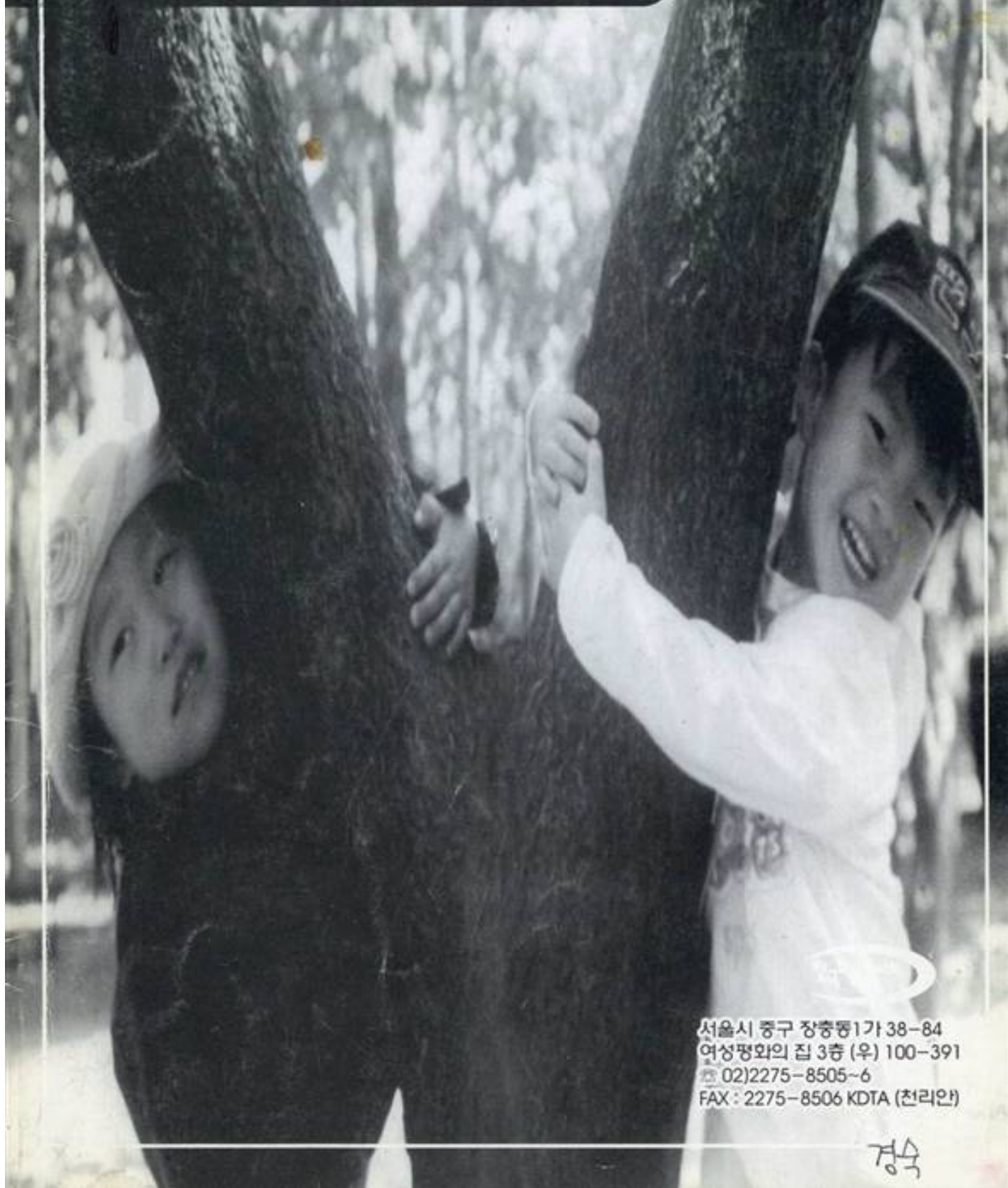


우리네아이들

보육활동의 길잡이

1999

12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275-8505~6
FAX : 2275-8506 KDTA (천리안)

정숙

교사선언문

1. 보육교사는 교육책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1. 보육교사는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1. 보육교사는 사회, 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1.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 정치, 문화적 활동을 한다.
1. 보육교사는 '어린이인권'을 소중히 하고 '인권보육'을 실천한다.
1.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토의 소주함, 민족의 역사와 문헌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1.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보육교사와 보육문제에 관심있는 분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 정회원이 되시면

- 매월 1만원 + @ (연회비 12만원과 지부, 지회별 일정 회비)를 납부합니다.
- 지부, 지회의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회 중앙과 지부에서 주최하는 교육행사 참여시 10~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회 지부, 지회에서 운영하는 각종 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본회에서 발간하는 자료집이나 판매자료 구입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회원이 되시면

- 매월 5,000원(연회비 6만원)을 납부합니다.
-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회 중앙에서 주최하는 교육 행사 참여시 10%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로 회원이 되시면

- 「우리네 아이들」 정기 구독료 30,000원(6개월 구독료 16,000원)을 납부하시고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회에서 주최하는 대내외 교육, 행사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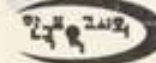
- 자료 회원은 중앙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로 가입
- 일반 회원, 정회원은 중앙 또는 홈페이지로 연락 → 지부, 지회로 연결 → 지부, 지회의 가입 절차에 따름

승금구좌: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의연 (6개월 구독 16,000원 1년 구독 30,000원)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9.11/12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275-8505~6 FAX: 2275-8506 KDTA(천리안)



한국보육교사회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는 이 계절.
아이들도 어느새 숲과
향유 어울려 다가오는
가을입니다.

1999년 11/12월호(통권
72호)/첫발행 1992년 5
월 25일/펴낸곳 한국보
육교사회/펴낸이 정희
연/편집인 이경녀, 김희
정/펴낸날 1999년 11월
1일

우리네

아이들

'99년 10/11월호

통권 72호

권두언	4
보육정책1	6
보육정책2	9
현장교육1	13
현장교육2	18
현장교육3	21
현장교육4	23
현장소식1	29
현장소식2	31
교사의 의견	32
연수기1	35
연수기2	38
인물 탐방기	41
어린이와 건강	45
아이들의 세상 만들기	48
육아일기	49
좋은 그림책소개	52
세상읽기	54
쉬어가는 쪽지	56
사이버 정보망	57
목소리1	58
목소리2	60
한국보육정보연구소	62
책 이야기	68
이색카페 찾아가기	69
여성과 사회	70
보육계종당	75
소식과소식	76
편집부에서	82

차등 보육료와 보육법 개정	머신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제안하며	편집부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문	정의연
우리 공룡이야기	서은희
전통리듬 놀이	김순아
장애아 통합교육을 하며...	문혜아
민속놀이 한마당	서연경
소방훈련을 마치고	서울 북부지회
'99년 신입회원교육을 마치며...	이준미
아동관과 관련된 고민	김실이
국제킨더가르텐 영아보육 세미나 연수기	김경애
열흘 간의 짧은 메모 (영아의 존엄성에 대한 국제회의)를 다녀와서	김진숙
그녀의 삶이 궁금하다.	편집부
중이염에 대하여	고시환
서울 튼튼이어린이집 이야기	서울 튼튼이어린이집
"너는 보모를 운 좋게 참 잘 만났구나."	박미라
헨리에타의 첫 겨울	오윤정
달순이와의 전쟁	주혜민
사람이 만나고 싶습니다	편집부
키드 인사이트(Kid Insights)	김지희
24시간, 디딤을 필요로 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며...	김정자
함께 어우러지는 송년잔치를 꿈꾸며...	편집부
튼튼하게 자라는 아이들 - 체육활동	김영명
세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	황미애
♪그대 발길이 머무는 곳에~	편집부
호주제 폐지로 평등한 가정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자!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 폐지운동본부

차등 보육료와 보육법 개정

이 선 ·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유아교육계와 영유아보육계간에 유아교육법(안)을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이 있어 왔는데, 논란 거리 중 하나가 무상 보육(교육)이나, 아니면 보육료 차등이나 하는 것이다. 무상 보육은 모든 아동들이 연령에 맞는 교육의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고소득층 자녀에게도 예산이 쓰여진다는 점에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고, 소득에 따른 보육료 차등제도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은 기대되나 이것은 대상자 선정이나 급여에 있어서 스티그마를 수반하게 되는 단점을 안고 있다. 어떠한 방식의 보육료 제도를 선택할 것인가는 그 나라의 복지 이데올로기와 복지 수준, 경제력 수준, 여타 제도와와의 형평성 등에 달려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두 방식이 항상 대치 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에 따른 보육료 차등(혹은 보육료 지원) 제도를 계속적으로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전 계층의 아동에 대한 무상 보육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보육료는 아동의 연령과 보호자의 수입에 따라 결정되는데, 보호자의 수입은 전년도 주민세 또는 전년도 소득세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보육료가 결정된다. 보육료 징수기준은 구립과 사립이 동일하고, 보육소 보호자부담금(보육료) 징수기준은 국비정산 기준과 구정수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으며 그 차액은 구비로 충당된다. 일본의 전체보육비용 중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20%를 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이미 차등보육료(보육료 지원 차등)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단 일본에 비해 그 대상자가 많지 않고 등급 구분이 단순할 뿐이다. 보육료 지원대상자는 전액 지원자와 일부 지원자로 구분되는데, 소위 법정저소득층은 보육료 전액을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다. 즉,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 가정, 부자가정보호 및 지원지침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 및 아동복지시설 취학전 2년전 아동은 보육료 전액을 지원 받는다. 그리고 1999년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수준이하 및 가구당 재산이 3,200만원(4,800만원) 이하 가정의 자녀는 보육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1998년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수는 총 115,286으로 전체 보육아동 545,433명의 21.1%에 달한다. 전액지원대상아동은 17,110명(한시적 생보자 자녀 포함)으로 전체 보육아동의 3.1%이고, 일부지원 대상아동은 98,176명으로 전체 아동의 18.0%이다.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에 있어서 문제는 첫째, 법정 저소득층 가구의 아동들이 모두다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 보육료 지원 대상가구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우나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구가 많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대상자와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여 저소득층 실업자 가정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보육료 지원 수준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보육료 지원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아동(법정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금(중앙정부 기준)은 국공립보육시설 표준보육단가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보육시설의 경우는 표준보육단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의 표준보육단가 수준의 금액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아동의 보육을 꺼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로 인해 주변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전액지원 대상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그 아동이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던지,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던지 간에 해당 시설의 표준보육단가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액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 이유는 그래야만 시설의 재정적 부담도 줄여줄 수 있고,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보육을 기피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부지원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액의 수준을 인상하여야 한다. 표준보육단가의 40%의 지원은 해당 가구에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2명 이상의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 반액지원 대상가구의 경우는 보육료 지원액 비율을 조금 더 높게 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보육료의 과중한 부담이 그들 가구로 하여금 취업을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고, 그것은 해당 가구의 생활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보육료 지원은 실재적으로 소득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해당 가구에 아동을 볼 볼 사람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일정 수준의 소득과 재산수준이하인 가구는 아동 보호자 유무와 상관없이 지원해야 한다. 왜냐하면 저소득가구의 경우는 노동을 통한 가계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보육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실직자나 빈민, 혹은 일반 시민에 대한 좋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도 그것을 잠재적 이용자가 모른다고 한다면 별 의미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잠재적 수요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육료 지원(혹은 차등 보육료) 제도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최저생계비 이하 전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게 되어 현재 보다 추가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데,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차상위 계층의 가구에 적극적인 노동 유인 정책을 펴서 그 가구가 빈곤가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육료 지원제도를 확대해 나감으로서 저소득 가구로 하여금 스스로 일을 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정부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방안이다.

둘째, 보육료 지원제도의 확대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연령에 맞는 적합한 경험을 하게 하여 아동학대와 청소년 문제 등과 같은 사회문제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기능을 할 수 있다. 현재 저소득층 아동 중 일부는 부모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거나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실형 보호자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건전한 성장에 필요한 올바른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이들에게 적합한 보호와 교육을 통해 사회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닌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보육료 지원제도의 확대는 기초적인 정책일 뿐이다.

이렇듯 예산의 효율적 사용의 측면, 기타 사회복지제도와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무상보육보다는 차등 보육료의 확대 실시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보육료 지원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얼마전 시민단체에서 청원한 보육법 개정안에 담겨져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제안하며

이 책은 지난 10월 24일에 열린 연유아보육법 개정에 관한 긴급공청회의 토론회 자료집에 실린 글이다. 지면관계상 연유아보육법 개정제안은 이 책의 주요 골자를 소개한다. 그리고 이번 민간학회의 법안 개정 작업에는 공동연구자인 권복수(한신대교수), 서울 YMCA, 한애한(한국보육교사학), 한국예찬도 등지침으로 한국예찬도(한애한)의 전문가로 한국예찬위원의 김재민, 유수현(한신대)이 참여하고 있다.

영 유아보육법의 개정에 있어 가장 전제가 되어야 할 부분은 아동의 권리차원에서 아동중심의 관점 하에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공급자중심의 현행 법 기조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법의 목적에 특정계층의 요보호 아동만이 아니라 보육이 필요한 모든 아동의 보육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에 있어 최선의 이익존중 원칙이 천명되어야 하며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도 아동이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야 한다.

전별적 서비스로서 규정되어졌던 보육서비스가 이제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변화된 상황에 따라 보편서비스로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근거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보육정책 기조는 시설의 양적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 결과 시설 수 및 보육아동의 양적인 확충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보육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많은 부분이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보육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질적 수준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이다.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공공보육대상의 확대이다. 이미 보육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법정 저소득층을 포함한 저소득층 계층의 자녀만이 아니고 일반아동으로 보육대상 아동이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보육정책은 요보호 아동만을 국가의 책임으로 하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로 보육사업이 전환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이에 맞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지나치게 높은 민간의존도의 문제이다. 양적 확충의 내용은 사실 대부분이 민간 시설의 증가로 인한 결과였지 국공립시설의 확충은 극히 미미하였다. 이제 시설의 양적 확충이 대체로 충족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은 국공립시설 뿐만이 아니라 민간보육시설에도 적절한 정

책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은 자칫 영리추구로 인해 보육사업이 시장 논리에 맡겨질 개연성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되므로 이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차등보육료제도의 확대이다. 정부의 정책 기조는 국가책임 및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논리에 근거한 민간주도 자율보육체계로 전환되는 경향성이 있다. 보육서비스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발전이나 서비스 생산비용의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용자의 소득수준과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비용수납을 하게 함으로써 과중한 부모부담과 시설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관련제도의 개선이다. 시설의 양적 확충을 위해 일시에 많은 시설종사자들이 필요하게 되어 단시간에 대량으로 시설장과 보육교사가 양산되었다. 이는 질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 하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육교사의 자격증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각각의 자격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외 근거가 될 수 있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로 방과후보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재정비되어야 한다. 현재 방과후보육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정책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는데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유일하게 근거하고 있는 방과후보육의 법적 규정은 매우 미흡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 방과후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여섯째로 영유아 및 방과후아동의 보육의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현행법에는 보육내용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고 단지 건강진단에 대한 조항이 있을 뿐이다. 보육의 개념을 사회복지서비스, 교육, 영양, 건강서비스를 종합하는 보호·교육의 통합적 개념으로 볼 때 이를 규정하는 내용이 법개정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건강·영양·안전의 조화와 보육의 내용과 보육 프로그램은 어떠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이 필요하다.

주요 골자

- 영유아 및 방과후아동의 보육을 위한 법입을 나타냄(법명칭 “영유아·아동보육법”)
- 모든 영유아 및 아동의 기본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유아 및 아동의 복지와 교육에 기여함과 동시에 가족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함(안 1조)
- 영유아 및 아동의 최선의 이익존중의 원칙하에 보육이 제공되어야 하며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도 차별 받아서는 안됨(안 2조)
- ‘아동’은 방과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13세 미만의 취학아동을 말하고 ‘방과후보육시설’이라 함은 방과후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을 말함(안 3조)
-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전면 실시연도와 순차적 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6조)
- 영유아 및 아동보육에 관한 정책심의와 평가를 위하여 보육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7조)
- 보육시설의 종류를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로 세분화(안 10조)
- 보육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교부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로서 등급은 1, 2, 3급으로 하며 그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방과후보육교사는 별도의 자격증을 교부함(안 18조)
- 국·공립보육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및 결식아동보육을 포함한 특수보육서비스를 우선 제공해야 함(안 23조)
- 보육시설의 입소대상은 영유아를 포함한 13세 미만 취학아동으로 함(안 24조)
- 보육시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함(안 26조)
- 건강·영양·안전(안 5장, 27조 - 32조)
- 보육과정(안 6장, 33조 - 37조)
- 영유아 및 방과후아동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차등 지원함. 기타 일반가구의 자녀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지역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되 그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안 37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지원보육시설의 운영기준에 준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함(안 38조)
- 법정저소득층 자녀가 거주지역에서 이용할 보육시설이 없거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육수당을 매월 지급해야 함(안 39조)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문

정의연 · 본회 회장

이 글은 지난 10월 24일에 열린 영유아보육법 개정세미나! 긴급공청회 자료집에 실린 글입니다.

1. 보육사업의 현황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필요성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보육정책의 기초는 시설의 양적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 결과 시설수 및 보육아동의 양적인 확충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이룬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보육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많은 부분이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보육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질적수준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에 있다.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근거가 되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현 시기는 1991년 이후 우리나라의 보육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이에 근거한 중장기적 플랜이 제시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작년 1995년부터 시작되어 1997년에 사업 종료가 된 ‘보육사업확충3개년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였고 관련단체와 학계에서도 평가작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평가에 근거하여 이후 보육사업의 전반적 발전방안의 근거가 될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1. 보육사업의 현황

1999년 6월 말 현재 전국의 보육시설수는 18,334개소로 국·공립 1,270개소, 법인 1,974개소, 단체 258개소, 직장 198개소, 민간 7,878개소, 가정 6,756개소로 분포되어 있다. 보육아동수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611,532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이중 국·공립에 96,080명, 법인 151,601명, 단체 11,290명, 직장 6,717명, 민간 280,843명, 가정 64,273명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를

1993년 전국 보육시설수 5,490개소, 전국 보육아동수 153,270명과 비교해 보면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분포도에서 알 수 있듯이 국·공립보육시설이 민간에 비해 비중이 매우 낮아 지나치게 민간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공공성의 취약, 높은 민간의존도가 우리나라 보육사업이 가지는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양적인 확충이 사실은 민간시설의 계획 이상의 설치량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2. 영유아보육법개정의 필요성

우선 전제가 되어야 할 부분은 아동의 권리차원에서, 아동중심의 관점에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현행법이 공급자중심의, 성인관점의 법체계라는 것은 여러 곳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보육서비스의 일차적 수혜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및 아동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보육대상 영유아 및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그들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차원에서 개정법의 전반적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보육아동이 60만이 넘어선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저소득 취업모의 자녀만이 아니라 일반가구의 아동으로 확대되어 이미 보편적 복지서비스로서의 체계를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여전히 요보호아동을 주요 보육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이 국가의 책임아래 보육될 수 있도록 법체계가 바뀌어야 한다.

질적수준을 향상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공공성의 확대이다. 앞서의 현황에서도 보았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사적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현정부의 정책기조가 시장경제 논리에 의거, 경쟁력을 통한 발전을 추구하는데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이러한 논리에 근거해서는 안된다. 보육서비스는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발전이나 서비스 생산비용의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보다 공공성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필요하다. 양적확충의 내용은 기실 민간시설의 증가로 인한 결과였지 국공립시설의 확충은 극히 미미하였다. 이제 정부의 지원은 국공립시설만이 아니라 민간보육시설에도 적절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은 자칫 영리추구로 인해 보육사업이 시장논리에 맡겨질 개연성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므로 이의 근거가 되는 법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용자의 소득수준과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보육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보육비용에 있어 과중한 부모부담과 시설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방과후보육에 대한 법적근거가 재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이다. 현재 방과후보육은 그 필요성과 수요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정책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고 할 수 있는데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유일하게 근거하고 있는 방과후보육의 법적규정은 매우 미흡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

보육이란 무엇인가, 보육대상 영유아 및 아동은 일상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보육서비스를 받는가, 또한 시설의 물리적환경은 안전하고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적 수준에 맞도록 갖춰져 있는가, 영양·안전·건강은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가 등의 내용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에 건강진단 정도의 내용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시설수가 증가하면서 시설간의 질적수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보육시설이 갖춰야할 환경적인 측면과 영유아 및 아동이 제공받는 보육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부분이 신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관련제도의 개선이다. 시설의 양적확충에 의해 일시에 많은 시설종사자들이 필요하게 되어 단시간에 대량으로 시설장과 보육교사가 양산되었다. 이는 질의 문제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우선 보육교사의 자격증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각각의 자격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1. 영유아·아동보육법(안)에 대한 의견

전반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영유아·아동보육법(안)에 동의하며 다만 강조해야 할 부분과 다소 보완되었으면 하는 부분 몇가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로 법의 목적을 요보호아동만이 아니라 보육욕구를 가진 모든 영유아 및 아동의 권리보장에 둔 것은 선별적서비스에서 보편적서비스로의 보육사업의 전환을 명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안)2조의 '이념' 조항의 신설도 위와같은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보육발전위원회가 신설되어 기존의 보육위원회의 기능에 평가항목이 보완된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의 시설설치 기준이나 종사자자격관련 조항은 초기부터 보육의 질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음뿐더러 그간 수차례에 걸쳐 기준이 완화되어 왔기 때문에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내용도 담보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따라서 보육의 질적 발전이 담면과제인 현상황에서 최소한의 기준이 아닌 발전을 지향하는 평가기준이 설정되고 이의 정기적 실시는 매우 시급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맞추어 법규정에 평가항목이 보완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평가작업이 사실 내실있게 실시되려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의 마련, 이를 실행할 평가단의 구성 및 이들의 전문성 등 선결되어야 할 몇가지 점이 있을 것이며 상당히 방대한 작업이 필요로 되리라 예상된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작업이 요구된다.

셋째로 보육의 질문제를 논의하면서 보육교사 및 시설장의 자질문제에 대하여 많은 문제제기들이 있어왔다. 왜냐하면 보육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어 중요요인이 아이들과 일차적으로 접촉하며 모든 보육서비스가 보육시설종사자들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지 10여년이 가까워 오지만 아직 보육교사들은 해당 자격을 인정받을 뿐이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전문직으로서의 보육교사직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인식을 개선하고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자격증제도의 도입은 오히려 시기가 늦은 측면이 있다. 또한 현행 1-2급 체계에서 1-2-3급 체계로 자격의 등급을 확대하므로써 보육현장에서 더 많은 실무경험을 쌓고 승급을 하게하여 보육교사의 질적수준을 높일 수 있는 토대의 한부분을 만든다는 점에서 법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이다. 구체적 자격기준의 강화와 자격인정범위의 축소를 통한 전문성의 강화, 보육교사 및 시설장에 대한 직전/현직교육에 대한 내용 등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이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시 반영될 내용이므로 여기서 자세한 언급을 피하겠으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넷째로 법(안) 제5장과 제6장의 신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특히 건강·영양·안전의 내용이 별장으로 처리되어 보육의 기능에 있어 중요 측면을 부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보육과정의 신설 또한 보육서비스의 내용적 측면을 일정한 기준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만 대안적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그룹들에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다양한 교육내용을 실시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융통성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다섯째로 현행 보육시설의 신고제를 재고해 볼수 없느냐는 점이다. 보육현장에서는 보육의 질적발전을 위하여 현행 신고제는 다시 인가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치원과 학교 등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은 엄격한 인가제이다. 어느 정도 양적확충을 이룬 현재 보육시설의 신고제는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나하는 것이 본 토론자의 의견이다.

비용의 문제와 방과후보육 등 몇가지 언급하지 않은 조항은 개정법(안)에 동의함을 전제로 영유아·아동보육법(안)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의 상당 부분은 개정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그와 버금가게 중요한 것은 법(안) 내용에서도 보여지다시피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구체적 내용을 어떻게 담느냐일 것이다. 오늘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으로 법(안)을 보완하고 그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작업이 되어야 하리라 본다.



우리 궁궐이야기

이 책은 서훈희선생님이 아이들과 우리 궁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피카소)라는 톰슨 방과후 교사의 아이들 신문예작은 주인공이다.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궁궐을, 독대들이 이 책을 읽고 나니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거군요. 참고로 여가매너라는 무궁화는 서훈희선생님이십니다.

서훈희 · 톰슨 방과후 교사

1. 궁궐?

얘들아, 너희들은 '궁궐' 하면 어떤 것들이 머리속에 떠오르니? 텔레비전 드라마 '왕과 비'가 떠오른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 또 뭐가 떠오르니? '큰 집, 왕비님, 화려한 옷, 고개 숙인 신하들....' 그렇구나. 무궁화는 '궁궐' 하면 초록색의 넓은 잔디와 의자,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 관광 안내원의 설명을 듣고 있는 외국인들, 그리고 멋진 포즈를 잡으며 사진을 찍고 있는 신랑, 신부가 떠오른다.

무궁화는 궁궐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어른이 된 최근까지 여러 번 가 봤단다. 학교 백일장, 사생대회, 견학. 그리고 이전 비밀인데 데이트하러 가 봤단다. 그런데 그때마다 기분이 좀 찝찝했어. 왜냐고? 그건 궁궐은 임금님이 생활하셨던 곳이라는 것만 알지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었어. 그러면서 혼자서 많은 질문들을 해 봤었지. '궁궐에는 임금님만 사셨을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궁궐에 살았을까? 또 임금님은 그 넓은 곳에서 무엇을 하며 사셨을까? 왜 이곳에 궁궐을 지었을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궁궐의 모습이 몇 백년전의 그 궁궐모습과 얼마나 똑같은 걸까? 달라졌다면 왜 많이 달라졌지?....'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많은 궁금함을 알 수 있도록 제대로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또 무궁화 스스로 알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 말이지. 그러다가 이번 여름 휴가 때 '참덕궁'을 가게 됐단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더이상 이런 궁금함을 미루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멀리 있어 가보기 힘든 것도 아니고, 조금만 애정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조상들의 삶을 제대로 느끼고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런 생각을 무궁화만 하고 무궁화만 알고 느낀다면 안되지 않겠니? 그래서 너희들에게 '궁궐답사'를 제안하게 된



거야. 조금은 지루하고 다리뭉을 팔아야 하니 힘도 들겠지만 애들아, 우리 즐겁게 우리의 역사 속으로, 과거의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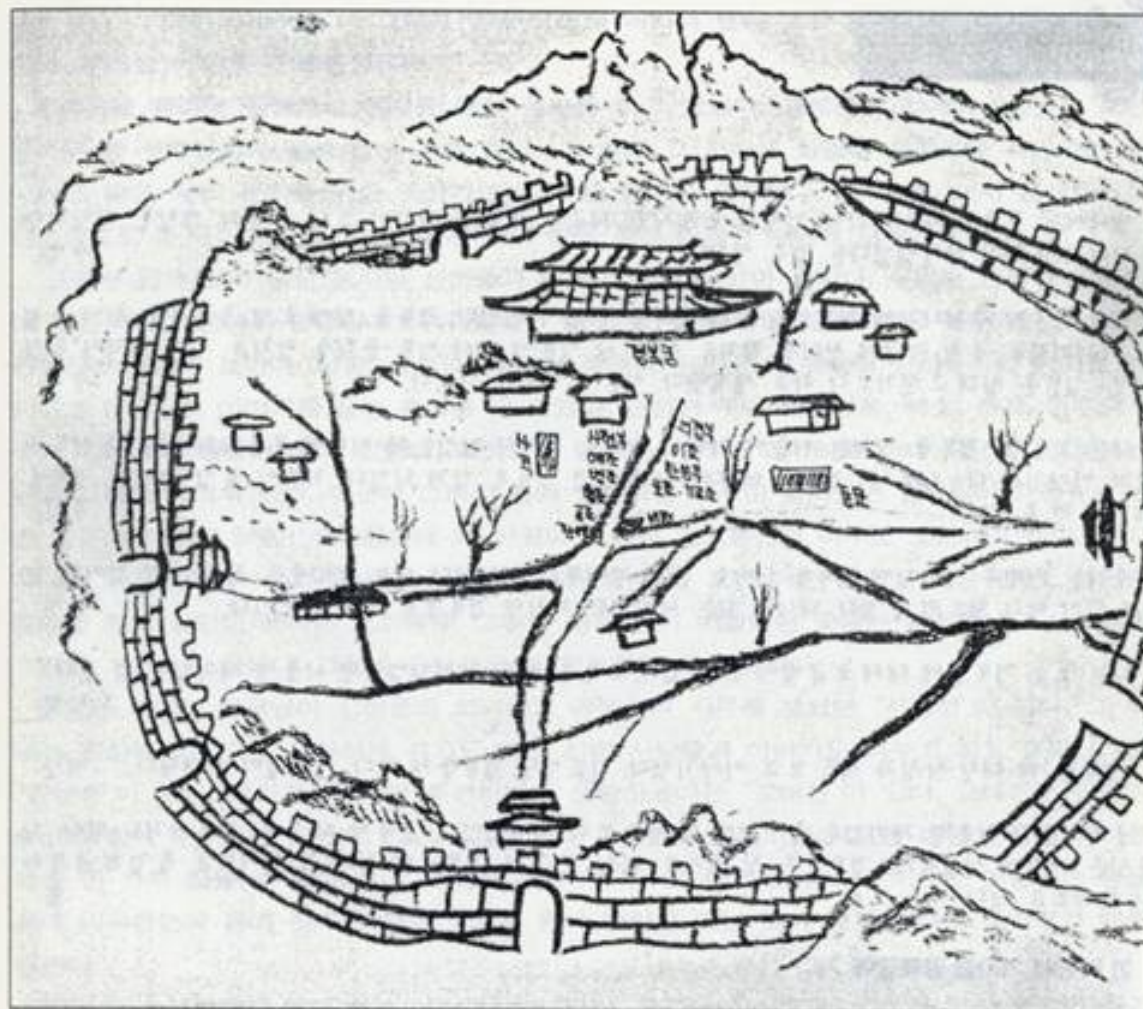
준비됐니? 자, 그럼 출발!!

2. 서울 이야기

서울은 한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산과 관악산이 서로 마주 바라보는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다. 지금의 서울이 수도(도읍)가 된 것은 조선 시대 태조때부터야. 그 이전인 고려때는 도읍이 개성(송도)이었어. 그런데 왜 태조 이성계는 도읍을 옮겼지? 궁금하지? 그건 이성계는 원래 왕이 아니었어. 장군이었던 이성계는 고려 말 어지럽고 혼란한 고려 왕조를 이성계가 무너뜨리고 왕이 된거지.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지. 이런 과정을 통해 왕이 된 이성계가 고려의 오랜 전통과 문화가 숨쉬는 개성을 좋아할 수 있었겠니? 이성계는 새롭게 시작하는 조선의 이미지와 자신의 왕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도읍을 찾아 나섰네. 그러다가 뒤편에는 백악과 인왕산이 품어주고 앞에는 한강이 흐르는 이곳 서울을 도읍으로 정하게 된 거야. 서울은 전국의 중심에 있고 교통도 다른 곳과 달리 편리해 도읍으로는 적합하다고 생각했지. 지금의 서울이 조선시대의 수도였으니 지금 서울에 있는 궁궐들은 모두 조선시대 왕이 살던 궁궐이 되겠지? 그건 벌써 알고 있었다고? 대단하네.

조선시대에는 서울을 한성, 도성, 경성, 환성이라고 불렀어. 애들아, 잘 봐봐. 모든 이름에 성(城)자가 들어가 있지 않니? 그건 왜 그럴까? 그건 예전에 서울은 너희들이 좋아하는 성(城)으로 둘러 싸여 있었기 때문이야. 서울이 성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면 성안과 성밖은 어떻게 연결되었을까? 옛날 서울은 성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4개의 큰문이 있었어. 우리가 '대문놀이' 할 때 부르잖니. 동대문(홍인문), 남대문(송래문), 서대문(돈의문), 북대문(숙정문). 이 네개의 큰 문과 이 사이사이에 또 네개의 작은 문이 있었어. 그런데 서울이 성으로 둘러싸여 있었다는데 왜 지금은 그 성을 볼 수 없는거지? 언제 성들이 다 허물어진 걸까? 그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성벽처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우리의 성벽을 다 훼손해 버렸기 때문이란단다. 성이 허물어지는 상황에 '문'인들 온전할 수 있었겠니? 너희들도 차를 타고 가다가 아마 많이 봤을 거야. 마치 외딴 섬처럼 도로 한가운데 딸랑 남아 자동차 매연을 마시고 서 있는 남대문과 동대문 말이야. 일제에 의해 훼손되고 없어진 것이 이것 뿐이겠나 마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너희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니?

자, 그럼 앞으로 떠날 궁궐답사를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옛 서울의 경복궁 주변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볼게. 이 그림을 자세히 본 뒤 우리 본격적인 궁궐답사를 시작하자.



3. 경복궁

서울에는 경복궁, 창덕궁, 경희궁, 경운궁(덕수궁), 창경궁 이렇게 5개의 궁궐이 있었다. 이 중에서 경복궁을 제일 먼저 답사하게 된 것은 경복궁은 태조 이성계가 한양에 도읍을 정하면서 제일 먼저 지은 궁궐이면서 5개의 궁궐들 가운데 그 규모가 제일 크고 그래서인지 지금의 모습으로 남기까지 참 많은 일들을 겪은 궁궐이기 때문이야.

지금까지는 무궁화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너희 친구들이 직접 경복궁을 답사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도록 할게. 기대하시라~

1) 알고 가지구

궁궐 답사팀은 9월5일(일요일)의 '경복궁 답사' 전에 친구들과 우리 궁궐, 특히 경복궁에 대해 알아보았단다. 조금은 힘들었지만 힘든 만큼 얻은 것들도 많았던 시간이었어.



옛날에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은 미국의 영향이 크다.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우리나라 문화가 발달했었다는 것을 알았다. -수민-

옛날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경복궁이 많이 변했다. 경복궁 앞에 조선 총독부를 지어 궁궐을 가려버렸고 궁궐 마당에 잔디를 깔기도 했다. 난 일본에 가서 일본 문화를 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일본은 원래 그런가보다 하고 생각했다. 일본이 앞집고 나뻐다. -수진-

나는 그동안 경복궁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무궁화라 친구, 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경복궁에 대해서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었다. 기분이 좋았다. 빨리 경복궁에 갔으면 좋겠다. -주연-

우리는 이번주 일요일에 경복궁 답사를 간다. 벌써부터 기대된다. 나는 준비물을 잘 가져갈 것이다. 난 일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쉬는 날이기도 하지만 경복궁을 가기 때문이다. -다진-

나는 오늘 경복궁에 대해 조금밖에 못 배웠다. 오늘은 별로 재미없었지만 나중엔 재미있을 것 같다. -인영-

경복궁에 대한 사진과 책을 보고 이야기했다. 일요일날 경복궁에 간다. 일요일이 기대된다. -혜인-

궁궐답사가 처음엔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듣고보니 재미있었다. 공부할 때 조금 지루하기도 했다. 임금님은 어떻게 살았을까? 경복궁은 참 멋지고 넓은 것 같다. 경복궁에 가서 잘 알아보고 즐겁게 공부하다 돌아오고 싶다. -숙-

2) 파랑새 기자들 경복궁에 가다

답사 날짜 : 99년 9월 5일(일요일)

답사한 사람 : 혜인, 인영, 다진, 수민, 솔, 주연, 수진, 무궁화

광화문사거리에 도착하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아침에는 날씨가 흐려 답지 않아 답사하기 좋은 날씨라고 생각했었는데..... 혹시나 하고 준비했던 우산을 꺼내 쓰고 초보 답사자들의 궁궐 답사를 시작했다.

조선시대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6조 거리였던 지금의 세종로부터 걸었다. 경복궁의 남문인 광화문을 바라보면서 빗속을 헤치고 걸었다. 답사 끝나고 무엇을 사먹을 것인가하는 중요하지만 뭔가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신나게 하다보니 광화문에 도착했다. 광화문에는 물로 만든 '해태'상이 있다. 이 해태는 상상의 동물인데 예전에는 지금의 세종문화회관 부근에 있었던 '사헌부' 앞에 있었다고 한다. 해태의 머리 가운데에는 아주 작은 뿔이 나 있다. 그동안은 몰랐었는데 답사 오기전에 공부한 책에 있었던 사진을 보니 뿔이 있었다. 해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불'을 막아주는 동물이 아니라고 한다. 해태는 잘못된 일을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동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 뿔로 박아서 혼내주었다고 한다. 알고 보니 참 맛있는 동물이다. 전에는 좀 이상하게 생겼다고 생각

했었는데 이번에 자세히 보니 그렇지 않았다(해태 머리의 뿔은 조금 떨어져서 자세히 봐야 보인다. 우리는 이번에 이 뿔을 봤다).

광화문을 통과해 들어가니 흥례문 복원 공사를 하고 있었다. 흥례문 자리에다 일본이 '조선 총독부'를 세웠었는데 몇년 전에 그걸 헐어내고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흥례문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 문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했다. 공사 중이어서 흥례문에서 근정전으로 못 들어가고 우리는 근정전 옆의 문을 통해 근정전 마당에 도착했다.

'근정전'은 왕실의 공식 행사와 신하들과 임금이 조회를 했던 곳이다. 우리는 근정전 앞마당에 있는 세 길 중에서 임금님이 다니셨다는 '어도(세 길중에서 가운데 조금 높은 길)'를 따라 근정전에 올라가 보았다. 아침, 그 전에 우리는 품계석 뒤에 서서 옛날의 신하들처럼 머리를 조아리고 임금님의 이야기를 듣는 흉내를 내 보았다. 근정전 주변에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4신과 십이지 동물들의 상이 있었다. 이것들은 임금을 지키는 의미라고 한다. 근정전 천정에는 용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곳에 그려진 용의 발가락을 자세히 살펴보면 발가락이 7개이다. 보통 용은 발가락이 5개인 오조룡인데 왜 이곳의 그림은 칠조룡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도 함께 오신 어떤 아저씨가 중국에도 천하를 통일한 왕이 살았던 곳에는 오조룡을, 그렇지 않은 왕이 머물렀던 곳에는 삼조룡이나 사조룡의 그림을 그렸다고 하셨다. 그런데 근정전은 왜 칠조룡일까? 궁금하다.

근정전 뒤에는 임금님이 신하들과 회의하고 공부하며 사무를 보셨던 '사정전'이 있다. 그 뒤에는 일상복 차림으로 편안하게 쉬기도 하고 친한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잠도 주무셨다는 '강년전'이 있다. 그리고 그 뒤편 중전마마가 생활하셨다는 '교태전'이 있다. 교태전은 임금과 왕비와 함께 주무셨던 곳이다. 그런데 강년전과 교태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건물들과 다른 점을 한 가지 찾을 수 있다. 바로 지붕에 '용마루'가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옛날에는 왕을 용에 비유했는데 용이 잠자는 위로 또다른 용이 덮치고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 이란다.

조금 오다 그치겠지 했던 비는 더 세차게 내렸다. 중간에 준비해 온 간식을 먹긴 했지만 배고프고 춥고 다리도 아파 우리는 교태전까지만 보고 돌아가기로 했다. 날씨만 좋았다면 중간중간 쉬면서 더 자세히 즐겁게 답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웠다.

'경복궁'은 일본에 의해 참 많은 수난을 당한 궁궐이다. 임진왜란 때 불이 나 대부분이 불타 버린 것을 고종 임금 때 다시 지었으나 그 후 또 다시 일본에 의해 많이 훼손되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경복궁의 규모는 원래 경복궁 모습의 10%밖에 남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경복궁은 또 고종황제의 왕비인 명성황후가 일본 강대국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된 가슴 아픈 곳이기도 하다.

일본에 의해 망가지고, 우리의 관심부족으로 없어진 우리 문화재가 어디 이것 뿐이겠나 마는 그동안 우리는 우리것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다. 제대로 알아야 화를 낼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안타까와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기? 이번 답사는 우리것을 제대로 알기위해 노력하는 첫 시작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들을 우리 파랑새 친구들은 해 나갈 것이다. 관심있는 친구들은 모여라!!!

참고 문헌 우리 궁궐 이야기 / 청년사



전통리듬 놀이

김순아 · 부산 동래, 아이들세상 어린이집

지금부터 소개하려는 '전통리듬놀이'는 지난 9월 30일에 있었던 부산보육교사회 교사재교육 '신명나는 유아체육놀이' 강좌 중 한 부분이다.

지금까지 우리 어린이집에서 했던 전통교육이라고 하면 북, 장구, 소고 등의 악기 다루기와 민요배우기, 전래놀이 해보기 등이었다. 그 중 악기 다루기를 계속 하면서 흥미를 잃어가는 아이들이 하나, 둘씩 늘어 갔다.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지만 5-7세 아이들이 장구 가락을 기능적으로 익히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회의가 들기도 했었다.

'전통리듬놀이' 강좌는 그런 나의 고민에 해답을 주었다.

전통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놀이 형태로 접근하면서 온 몸으로 가슴 밑바닥에 있는 신명을 느끼게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락, 장단, 춤을 익히게 하는 '전통리듬 놀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활동인 것 같다.

그 뒤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매주 화요일, 오후 간식 후 모두 모여서) 체육 시간을 마련해 체육 놀이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무척 즐거워 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린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진행했던 활동을 소개 하면서 신명나는 유아체육놀이 연구회에서 발간한 자료집을 참고 했음을 미리 밝힌다.

〈활동 하나. 소리와 움직임의 적용〉

예1) 북소리 듣고 움직임 표현하기

① 체육놀이를 하기 전 김영동 영상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몸풀기부터 한다.

② 북소리에 맞춰 걸어보기

북을 강하게 치면 - 무겁게 걷는다

북을 약하게 치면 - 가볍게 걷는다

북을 빠르게 치면 - 빠르게 걷는다

북을 느리게 치면 - 느리게 걷는다

→ 이 규칙을 응용하면

북을 강하고 빠르게 치면 - 무겁고 빠르게 걷는다.

북을 약하고 빠르게 치면 - 가볍고 빠르게 걷는다.

북을 강하고 느리게 치면 - 무겁고 느리게 걷는다

북을 약하고 느리게 치면 - 가볍고 느리게 걷는다

③ 북소리에 맞춰 뛰어 보기

북을 강하게 치면 - 높이 뛰기

북을 약하게 치면 - 낮게 뛰기

④ 북소리에 맞춰 동물 흉내내기

북을 느리게 치면 - 거북이처럼 기어가기

북을 빠르게 치면 - 말처럼 뛰어가기

예2) 장구소리 듣고 움직임 표현하기

① 장구의 '따', '둥' 소리를 들려 준다.

② '둥' 하면 강시처럼 발을 모으고 손을 뻗어서 뛰어보기

③ '따' 하면 손뼉쳐보기

④ 종과 따를 합쳐서 해보기(종따따, 둥둥따, 둥따따따, 둥둥따따 등)

⑤ 종과 따를 같이(둥)치면 점프해서 손뼉치기(둥둥둥따둥, 둥따따둥따둥 등)

〈활동 둘. 장단과 움직임의 적용〉

예)

교사 : 선생님이 장구랑 친한 친구 3명을 소개 시켜 주세요.

3명의 친구 중에서 가장 느림보 친구 이름은 따라해 보세요. 굿 거 리!

유아 : 굿 거 리!

교사 : (굿거리 장단을 들려 주며) 이런 말을 하면 굿거리다. 굿거리는 느림보가 되어서 살금 살금 잡자리를 잘 잡아요. 우리 친구들 모두 살금 살금 잡자리를 잡으러 가보자.

(장단을 들으며 살금살금 벽에 붙어 있는 잡자리나 친구 어깨나 등에 붙어 있는 잡자리를 잡게 한다.)

교사 : 날아다니는 잡자리가 예뻐요, 손에 가만히 있는 잡자리가 예뻐요?

유아 : 날아 다니는 잡자리가 보기 좋아요.

교사 : 선생님이 하나 둘 셋하면 "날아라"하고 하늘 높이 날려 주자.

하나 둘- 셋!

유아 : 날아라!

교사 : 하늘을 날고 있는 잡자리가 우리 친구들에게 고마워 할거야.



교사 : 곳거리보다 조금 더 씩씩하고 빠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은 자진모리야. 따라해 보세요. 자 진 모 리!

유아 : 자 진 모 리!

교사 : (자진모리 장단을 들려 주며) 이런 말을 하면 자진모리다.

곳거리 친구보다 씩씩하고 빠르는데 어떻게 움직이면 될까?

유아 : 씩씩하게 걸어요.

교사 : 그러면 자진모리 친구처럼 씩씩하게 걸어볼 수 있겠니?

유아 : 예!

교사 : (걸으면서 악수하거나 엉덩이로 뽀뽀하며 인사하게 한다. 짝궁끼리 손잡고 걸거나 어깨동무해서 걷게 한다.)

교사 : 장구랑 친한 친구 3명의 친구 중에서 가장 씩씩하고 용감하고 빠른 친구 이름은 휘모리아. 휘 모 리!

유아 : 휘 모 리!

교사 : 휘모리는 이런 말을 해.(휘모리 장단을 들려 준다)

가장 빠르고 씩씩한 휘모리 친구는 어떻게 움직일까?

유아 : 달려요.

교사 : 휘모리 친구처럼 빠르게 달려 보자.

(달리면서 발돋움 밟게 하거나 짝궁끼리 손잡고 달리게 한다.)



장애아 통합교육을 하며...

통합교육이 장애아교육에 교육적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장애아교육에도 긍정적인 사회적 반대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내아이에겐 속속 거북갑이 씌어 비교적 쉽게 융화될 수 있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몇몇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에서도 대구보육교사회를 중심으로 '신아리어린이집'은 재주꾼 장애아 조기 교육을 위한 '비버리 보육시설'과 이담 어린이집, 감나무골 어린이집이 북돋워져서 미통합수업을 지도하고 있어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문예아 · 대구, 감나무골 어린이집

1. 들어가며

98년 한사람 어린이집의 제안으로 디딤 어린이집과 배곧마당, 휴장난 어린이집(현재 문을 닫음)이 함께 통합 여름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후 통합 캠프에 대한 평가 속에 통합 교육의 필요성과 일회성 행사가 가지는 문제점들을 인식하며 감나무골 어린이집까지 함께 참여하는 월 1회 통합 아외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월1회라는 한계속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한사람 어린이집이 99년부터 정식으로 대구보육교사회(준)에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한사람, 디딤, 감나무골 어린이집이 통합교육이라는 교육철학 아래 각 집 교사들이 월1회의 통합교육회의를 구성하여 통합교육의 구체적인 행사 일정과 프로그램 준비 및 진행, 평가까지 공유하게 되었다.

2. 통합교육 구성

▶ 교향 방문 수업

월1회 주중 방문 수업을 하기로 정하고 상반기에는 한사람에서 진행을 하면서 디딤과 감나무골을 각각 다른 주에 방문, 통합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디딤과 감나무골에서 수업준비를 하고 한사람이 각 집을 방문, 수업을 진행하였다.

▶ 통합 아외 수업

월1회 한사람, 디딤, 감나무골 어린이집이 함께 아외로 나가 바깥놀이를 진행한다.

▶ 자원활동가들과의 수업

한사람에서 활동하는 자원활동가(사회시설연구회)들의 주최로 진행되며 세 어린이집이 함께 참여하는 수업이다.



3. 통합교육내용의 예

아래와 같은 틀을 가지고 진행된 수업은 4월이며 여기서는 하나의 예로 10월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교원방문수업	통합아외수업	자원활동가와의 수업
· 일시: 10월 7일 목요일 오전 10:30~12:00 · 참가인원: 한사람 10명, 갈 나무꾼 8명, 교사 3명 · 수업내용 1. 간식 먹기 2. 손유희 3. 옛이야기 듣기 4. 신문지로 할 수 있는 활동 (그림그리기, 사진오리기, 붙이기 등등) 5. 정리, 인사	· 일시: 10월 23일 (토) · 장소: 어린이 회관 · 참가인원: 디딤10명, 갈나무꾼10명, 한사람4명, 교사3명, 자원10명 · 수업내용 각 집 아동을 세 개의 모둠으로 나누어 배치, 기초적인 과학실험을 접할 수 있게 하고 야외공원에서 주위환경의 변화로 계절의 변화를 알게 한다.	· 일시: 10월 16일(토) · 오전 10:30~12:30 · 장소: 한사람 어린이집 · 참가인원: 갈나무꾼7명, 한사람 7명, 인솔교사 2명, 활동가 5명 · 수업내용 1. 짝 정해서 인사하기 2. 짝과 같이 앉구르기 3. 비장애아동 눈가리고 장애아동과 손잡고 장애물 넘기 4. 짝과 같이 글자 낚시 5. 고깔모자 만들어 짝이랑 바꿔쓰기 6. 간식먹기, 정리

4. 통합교육의 성과와 문제점

처음 통합교육을 시작할 때는 어떤 거창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네 아이들이 장애, 비장애라는 구분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서 출발되었다.

한달에 세번이라는 한정된 시간이지만 7개월간 지속적으로 진행된 통합수업으로 처음에 보였던 비장애 아동들의 어색함이 이제는 수줍은 인사와 자연스러운 포용으로 발전하고 있다. 어쩌면 통합수업의 효과는 비장애 아동들이 더 누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장애아동들만의 공간에서 벗어나 비장애 아동들과의 자연스런 만남을 통해 우리의 예쁜 장애아동들의 사회성 발달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비장애 아동들이 무조건 어떤 도움이 될 수는 없지만 함께 자라는 모습이 이제 조금씩 자리잡아 가고 있다. 또한 교사모임도 '회의'라는 딱딱한 구조를 넘어 통합회의를 통해 좀더 친밀한 교류로 활성화 되었다.

반면 통합교육이 일상적인 교육으로 흐르지 못하고, 수업진행에 있어서 일반보육교사의 장애아에 대한 인식의 한계, 각 어린이집의 바쁜 일정 속에서 계획, 준비 부족 등으로 좀더 체계적인 교육환경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통합교육'이라는 공동의 목표아래 점진적인 노력이 있다면 부분적인 통합교육이지만 좀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리라 기대해 본다.



민속놀이 한마당

서현경 · 안산, 근로복지공단 안산 어린이집

비오는 날에 민속놀이 해 보셨습니까?

흥에 겨워...

커다란 함성을 지르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 묻어나는 그 진지함을 보신 적 있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감강술래의 큰 원을 만들어가며 하나된 전율을 느껴 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문화의 새 힘이며 우리 것에 대한 나눔입니다.

문화란 '인간집단의 생활 양식의 총체'라고 정의 할 때 우리의 문화를 익혀간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양식과 그 속에 깃든 민족의 정신을 익혀 가는 것입니다.

특히 아동기의 아이들은 문화적 경험을 통해 그 사회의 가치와 정서와 지식과 관습 등을 익혀가며 사회화되어 갑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색다른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또 바람직한 우리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보고자 시도한 「민속놀이 한마당」과 「자연물을 이용한 작은 전시회」는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며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 민속놀이 한마당 ■

이미 3회 짝 맞는 민속놀이 한마당이 또 다른 감동과 즐거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의 교육활동이 총화 되는 자리이며, 준비의 성숙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교육활동의 성숙과 교사의 준비 그리고 행사에 대한 충분한 의미공유 덕분입니다.

개원 이후(97. 7. 1) 줄곧 국악교육과 민속놀이 한마당, 설날 민속주간, 전래놀이, 전래등요, 옛이야기 등 우리 나라와 관련된 즉, 민족의 정서와 문화에 대한 교육활동을 지속해 왔고, 자연친화적인 활동으로 '텃밭 일구기(약 100평)'와 자연 학습장(300평 15분 거리에 있음)운영 및 다양한 현장 견학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교사 스스로 우리 것에 대한 자긍심과 체화 된 정서를 지니고 있으며, 교사 전원(14명)이 장구 등이 국악기를 다루는 실제적 기능과 능력을 익혀왔고, 민족교육의 필요성을 늘 고민해 왔습니다. 이런 준비의 성숙과 더불어 8월 교사회의에서 이번 행사에 대한 방향과 의미를 공유하고, 적절하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과 9월 교육 주제인 '우리 나라' 단원과 관련된 활동을 총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교육환경연구팀에서 환경구성을 고민하여 '옛이야기'를 주제로 환경관 및 어린이집의 각 공간을 꾸밀 것을 제안했으며 이에 '흥부와 놀부/ 도깨비와 방망이/ 햇님 달님' 등 13개의 환경관을 구성하고 아이들과 각 반을 다니면서 이야기도 나누어보고, 서로 구경도 하였습니다.

교사들은 각 영역에 필요한 교구를 만들고, 부모님께서는 옛날 물건들의 협조를 요청해서 전시했습니다. 현장 견학 후에는 사진과 그 곳의 기념품들을 가지고 와서 교육활동을 확장했고 시립 국악단원들의 연습장소에 까지 가서 우리 가락을 직접 들어보는 등 우리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 보았습니다.

특히 경기도 박물관을 다녀온 후 교사들이 옛날 관화 그림을 직접 조각하여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어 교실의 한 쪽 영역에서는 늘 벽물로 찍어내는 관화로 가득했습니다.

또한 길거리에 버려진 옛날 '장롱'과 '뽕뚜'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위 오는 교사들의 그 열정으로 어린이집이 아름답게 바뀌어 갔습니다.

아이들은 한 달 내내 다양한 전통놀이를 즐기며 연습했습니다. 씨름 대표 선수를 뽑고, 줄다리기로 겨루기를 했고, 어린이집 곳곳에서 감강술래와 음체조의 가락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함께 준비하고 아이들이 즐기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무척 신나하고 민속놀이와 전시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인지 많은 부모님께서 당일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자원활동가의 활용이 조직적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큰 행사를 위해 많은 준비들 - 경기관을 만들고 아이들 조끼를 수선하는 등 그 많은 일들을 한양대학교 '아해사람' 동아리에서 약 40명의 학생들이 골고루 도와주었고 당일 행사 진행 보조요원으로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의 활동을 마치고 민속놀이 한마당이 시작되던 날...

빗방울로 떨어지는데도 아랑곳없이 '음체조'로 열심히 호흡을 가다듬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 벅찬 감동과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구경하던 부모님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고, '어머나', '아유, 예뻐라!'라는 탄성과 함께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실 정도였습니다.

아이들의 신명나는 거름과 부모님들의 줄다리기와 씨름, 선생님들의 널 띄기 한 판, 그리고 흥겨움의 절정인 '물 던지기'를 할 때는 끝없는 함성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한껏 발산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대동마당에서는 선생님들이 직접 사물을 치면서 녹음한 '감강술래'에 맞추어 모두 함께 어울려 뛰었고 모두 하나되는 큰 원이 만들어질 때는 '그래, 애들아! 우리 한민족이란다!'라는 독백이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느끼는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강인한 민족의 정서를 민속놀이를 통해 경험하고 즐겼던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1부 여는 마당

2부 놀이 마당

놀이	진행	준비물
음체조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음체조	음체조 테이프
기차놀이	각반 5인씩 연령별 거름	작은 동아줄2, 깃발2
씨름	천하장사 뽑기(반별 대표로 선발된 남/여1인씩 거름) 천하장사는 교사가 가마 태워주기-허리띠 매주기	모래주머니 배치, 징 천하장사 허리띠
널뛰기	교사들의 거름	널판2개/명석2개/선물
줄다리기	연령별 거름 부모님 줄다리기	동아줄/호루라기/징/깃발 /얇은 천/끈
물 던지기	강(얇은 천)을 사이에 두고 두 마을(침/흥)로 나눈다. 흥 침 각 팀이 만든 물병이를 준비 바닥에 흩어 놓는다 상대팀에게 강을 넘겨서 고향과 함께 던진다(1-2분) 징 소리와 함께 중단하고 우리 마을에 떨어진 물을 바구니에 담는다 눈대중으로 보아 물이 작은 팀이 승리	얇은 천 긴 깃 박스(대) 2개 종이를

3부 맺는 마당 시상식

4부 대동 마당 우리모두 하나되어

놀이	진행	준비물
감강술래	머리꾼-각반 담임교사 순서: 걸기▶뛰기▶교사리 찍기▶명석풀기 ▶대문열기▶걸기▶뛰기	감강술래 노래 테이프

■ 자연물을 이용한 아이들의 작은 전시회 ■

지난 9월 말, 물/ 종이, 흙/ 물 등의 자연물을 이용한 아이들의 조형물 전시를 통하여 아이, 부모, 지역 사회가 함께 우리 문화를 느끼고, 공유하는 문화행사를 '민속놀이 한마당'과 함께 마련했습니다.

(전시 내용)

하나. 자연물을 이용한 미술활동 구성물

종이 - 절구, 꽃신, 한지 물들이기 외 다수



물	10	5	10	5	10	5
나무/ 풀 - 풀각시, 내나무 풀총, 활 외 다수						
흙 - 토우, 초가집, 향아리 외 다수						
물 - 찹기, 물들이기 외 다수						
그 외 자연물 - 소라, 신문지, 실, 야채, 꽃						
둘. 전통의 멋과 정서를 담은 교구 및 환경전시						
옛이야기를 주제로 한 환경판 15점						
우리 나라를 주제로 한 교구 10점						

셋. 미술활동 시작 모습

여름에 구하기 쉬운 재료들을 중심으로 6월부터 '자연물'을 이용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텃밭과 꽃밭에서 재료를 구하고 부모님들이 보내주신 조개, 소라, 밤, 대추, 신문지로 재미있는 구성물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전통문화에 대한 체험과 도심 속의 잃어버린 놀이에 대한 재현이며, 표현의 과정이었습니다.

3개월간의 활동 속에서 많은 작품들이 모였고, 아이들과 교사들이 많은 흥미를 보였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모아졌습니다. 덧붙여 9월 한 달 동안 '우리 나라' 단원에서의 표현 활동을 더욱 확장하고 지속하여 이것을 전시회로 외화하기로 교사회의에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시회에 대한 부담감과 부박하고 어설피기 짝이 없는 아이들의 작품으로 전시회가 될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준비했습니다.

결국 전시회를 통해 많은 보람과 성취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더욱 소중히 간직하는 기회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아이들 스스로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이 흐뭇했습니다.

아이들의 작품전시회는

많은 교육적, 문화적, 정서적 합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시를 통해 부모님과 어린이집의 교육활동과 교육관을 공유할 수 있으며, 아동들이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느끼는 자리인 것입니다.

미술활동의 끝은 감상이라고 합니다.

전시를 통해 아동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작품을 감상하며 또 다른 새로운 느낌의 예술적 경험을 체험하고 자신의 작품이 전시된 것을 보면서 자아 존중감과 자신감 그리고 자긍심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전시회는 문화적 교류의 장으로써 아이들과 어른들은 전시회를 보며 '수많은 사실과 느낌과 생각'을 이야기하고 토론합니다.

더불어 바람직한 문화 제공의 장으로써 '자연물을 이용한 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과 전시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상들의 정서와 멋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공유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1. 전시회는 교육활동의 결과이어야 합니다.

행사를 위한 예쁘고 완결된 작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의 교육관과 철학을 바탕

으로 활동 속에서 나온 결과물의 전시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과정이 곧 교육활동 과정이어야 합니다. 즉, 이번 전시는 지난 여름 내내 자연물(종이, 흙, 물, 풀)을 이용한 활동을 우리 나라라는 주제와 접목시켜 더욱 활동을 확장시키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아동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탐색을 통한 느낌을 표현하게 한 결과인 것이죠.

2. 전시회는 아이들의 것이어야 합니다.

부박하고 어설피지만 아이들의 노력과 창의력에 대한 존중의 자리여야 합니다.

즉, 어른들이 보기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동이 부여한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존중되도록 전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의 작품설명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시회 준비과정이 아이들에게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만들고, 염색하고, 꾸미고, 말리고, 붙이는 표현활동의 과정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도 무엇을 하는지를 알려주고 기대하게 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리도록 함으로써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전시회는 문화를 공유하는 장입니다.

흙/종이/물(염색) 등의 자연물을 이용한 아이들의 초원물의 전시를 통해 감상이라는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고, 특히 문화적으로 소외되어온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아이와 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새로운 문화공간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전시회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점들

1. 테마(주제)가 있는 전시회가 좋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전시회는 교육활동의 결과이며 어린이집의 교육관의 반영입니다. 그러므로 일에서 추구하는 교육방향과 부합되는 주제를 설정하면 교사도 아동도 준비하는 과정이 낯설거나 동떨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이며 집중된 고민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활동이 심도 깊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중점적인 기획이 필요합니다.

전시회만 할 수도 있지만 관련된 활동 및 환경구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린이집과 전시회가 분리되지 않고 잘 어우러져 편안하고 자연스런 전시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 어린이집은 3일간 전시를 하고 그 중간에 민속놀이 한마당 행사를 진행했으며, 어린이집 환경구성도 '우리 나라'의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코너마다 옛날 물건을 전시하고 환경구성도 옛이야기를 주제로 했습니다.

또한 환경판(15점)을 사진으로 찍어 같이 전시를 했고 작품 활동 과정 또한 사진으로 전시하니, 생동감이 넘치고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코너에는 교사가 만든 '관화 찻기판' 등 미술활동을 위해 만든 교구교재를 전시해 좋아 재미를 더했습니다.

3. 부모님과의 협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무엇을 하는지, 왜 하는지 부모님들이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실제로 다양한 재료를 부모님들이 협조해 주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간교육계획안/ 가정통신문/ 등의 활용과 더불어 아이들이 손수 만든 초대



장을 가정으로 보내고 아이들이 그 내용을 부모님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분위기 연출은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전시회의 주제에 따라 음악 선정/ 안내자의 복장/ 배경관/ 조명 등이 다르게 선정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어린이집의 공간구성과 분위기와 어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어린이집은 현대식 건물로 로비가 상당히 넓은 것이 특징이라서 분산 배치하여 전시회를 하는 것보다 로비에 집중적으로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고 모던하지만 옛 것과 자연물과 잘 조화된 느낌이 들었고 마치 미술관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음악으로 김영동의 대금산조와 생활한복을 입은 안내자, 옛책처럼 만든 방명록, 부분조명 그리고 한지로 만든 배경관이 전시회 작품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습니다.

마지막

9월 한달 간의 행사와 활동을 끝내고 어린이집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의 아이들은 나뭇잎 하나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지 않아도 이것저것 주워와서 구성하고 표현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의 결과물을 인정할 줄 알며 그것이 소중한 대안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교실마다 나무 조각, 물든 단풍잎 온갖 가지 곡식과 열매들이 난무합니다.

재반 주는 커다란 영아용 풀장에 나뭇잎을 가득 채워 넣고 뽕글뽕글 이번 주는 콩이 그득한 풀 속에 들어가 탐색하고 쏟아보고 던져보고 느껴봅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의 매일이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사진 찍기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재미난 활동을 기록하고, 사진으로 남겨두고 다시 평가하는 등 선생님들이 더욱 노력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 더 많은 연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젠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전시회를 생각하면 늘 가슴이 벅차 옵니다.

그건 아마도 '우리의 것' 바로 '우리 아이들의 모습 그대로'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멋진 결과가 있기까지 늘 많은 조언과 좋은 자료를 제공해주신 '보육교사회'와 특히 '99 여름수련회 준비팀'에게 감사하며

아이들을 위해 늘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저희 근로복지공단 안산어린이집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의 자연스러움'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전시회와 맞추어 학마당서점 자료실이 정리되어 있으니 보시고 싶으신 분은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공개해 드립니다.

*월간유아 11월호 환경구경편을 보며 환경관서점 자료가 있습니다.



소방훈련을 마치고

서울 북부지회

이 글은 서울지부 소식지인 '이! 창밖다'에 실린 글로 북부지회에서 발행된 교사고육내용으로 '이! 창밖다' 어린이집의 방화경이 전방향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난 여름 씨랜드 참사는 우리에게 그간 소홀이 했던 많은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북부지회에서 소방훈련에 관한 토론을 한 것도 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토론하기로 한 후 각 회원마다 분주하게 자료를 찾았습니다. 도봉소방서를 통해 비디오 자료도 찾고 화재보험협회에 의뢰하여 소방안전교육 자료도 받아보고 그리고 서점에 가서 관련 도서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어린이집마다 소방훈련을 비롯한 각종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훈련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여건들-단독건물이 아닌 경우 입주자와의 문제, 비상구를 형식적으로만 설치한 경우, 별도의 시간을 계획하기 어려운 경우 등등-로 인하여 미루어왔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북부지회의 어린이집에서는 교사회의를 통해 훈련일정을 잡고 방법을 토론하였습니다. 사전활동으로는 화재가 나는 원인 알아보기, 전화신고 해보기, 대피요령 습득하기, 몸에 불이 붙었을 때 행동요령 등을 익혀보았습니다. 본활동으로는 사이렌 소리 또는 선생님이 '불이야'라고 큰 소리로 알리고 가장 빠른 시간내에 어린이집을 빠져나가는 대피훈련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아이들에게 신발 꺾어신고 나가기(아무리 급해도 신발의 끈을 확인해야하는 몇몇의 꼼꼼한 아동들...), 선생님 앞으로 모이기, 대피순서(어느 반부터 대피할 것인지)에 따라 밀지 말고 신속하게 빠져나가기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사후활동으로는 불조심을 알리는 그림그리기, 대피훈련에 대해 아이들의 의견듣기 등을 진행하였는데 대체로 아이들의 반응은 '재미있다', '언제 또 하느냐' 등 대피훈련 조차 하나의 놀이로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훈련 후 자연스럽게 '119구조대' 놀이가 이뤄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어느날 밤 토론을 위해 모인 지회 선생님들은 모두 뿌듯한 마음들이었습니다. 처음 해 본 훈련을 통해 아이들이 생각하는 소방훈련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서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훈련에 참가한 아



현장소식1

이들 중 어린 연령의 경우 '가상의 불'에 대한 '가상의 훈련'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Pajet가 이야기한 것처럼 구체적 사물을 통해서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이겠지요. 이런 아이를 위해 가상의 불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둘째로는 어떤 상황에서 불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을 찾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셋째로 교사간 역할을 정하고 이에 따라 2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참고자료

- 깨비의 화재여행 (VTR 15분 정도)
도봉소방서에 직접 방문하여 녹화를 의뢰하면 됩니다. 갈 때 녹화용테이프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도봉소방서 연락처는 02-3493-1813 홍보담당)
- 영유아를 위한 안전교육, 이기숙 김영희 정미라 배소연 박희숙 공저, 양서원, 1997년
- 불조심 길라잡이(불조심 어린이마당), 한국화재보험협회, 1997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는 씨랜드 참사 이후 교사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1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50명 이상 교사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은 후 교육이 가능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자료를 발송해주고 있습니다. 연락처는 02-780-8156)



현장소식2

'99년 신입회원교육을 마치며...

이춘미 · 광주, 도담도담어린이집

도담도담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이춘미.

찌지찌한 땀배라 땀..... 근무한 지 10개월 밖에 되지 않은 아직은 풋내기 교사이지만 넉넉한 미소와 중후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멋드러진 여성이다.

보육과를 졸업 후 졸업하고 운이 좋게도 예쁘고 깔끔한 교사(씩씩이반 박미영 교사라고 많은 못 하지만)가 있는 도담도담에 인턴 사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다. 대학시절 보육교사들의 낮은 사회적 인식과 처우로 인해 진로를 선정하는데 갈등을 해왔던 게 사실이지만 지금의 상황은 노노노(No!)이다. 지금은 보육교사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고 해야 하나.

신입회원 교육이 있기 전 선배 왈,

"신입회원교육이 있으니깐 같이 하자. 너에게 많은 도움이 될꺼야."

춘미 왈, "나 안해. 그런 걸 뭘러 허."

말 그대로다. 처음에는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싶어서 교육을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신입회원 교육이 끝난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은 교육 받은게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이다. 왜냐면 모르는 회원과 한데 어울릴 수가 있었고, 보육교사회에 대해 모르는 부분을 알고 조금은 다 가설 수 있었으니까.

제 1강은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 보육교사회로'라는 주제로 한국보육교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알아볼 수가 있었고, 제2강과 3강은 한데 묶어져서 강의를 했었는데 강사의 쏟아지는 질문 속에서 교육을 당하기는 했었지만 그동안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었던 노동교육, 통일교육, 공동체 교육, 성평등 교육 등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할 수 있었으며, 제3강의 '참된 교사의 권위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는 내가 짧은 보육경력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권위로서 아이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누르지는 않았었는가? 하는 뼈저린 반성과 함께 이것 저것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제 1강부터 3강까지 작은 부분 하나까지 세심하게 설명해 주신 감사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나의 두서없이 써 내려온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다는 말도 덧붙인다.

앞으로 더 나은 보육교사회를 꿈꾸며 화 이 팀!



아동관과 관련된 고민

김실이 · 안산, 근로복지공단 안산어린이집

교사라면 누구나 마음 속에 그리는 이상적인 아동의 상이 있다. 이런 목표와 함께 “아이들은 ***한 존재이다” 하는 이해와 “그래서 나는 아이들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대하겠다” 하는 방법이 어우러져 <아동관>이 된다.

내가 바라는 아이의 모습은 비교적 분명하게 그려진다. 아이들의 존재에 대한 이해도 때때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하지만 대체로 선명하다. 역시 가장 어렵게 느끼는 문제는 실현의 문제이다.

내가 지금 국을 얻은 대영이를 옮겨왔다면, 내가 숨가쁜 교육계획을 하고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여러 형태의 압력을 행사한다면, 내가 조작방의 장난감을 용도변경하여 역할 방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주회를 제지한다면, 나는 진짜로 아이들의 능력을 믿고, 아이들을 존중하는 것일까?

아이들과 함께 한 지 8년이 되었지만 가끔은 나의 인격적인 자질을 심각하게 의심해 보기도 하고 그간 유아교육계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룩해 놓은 방법들을 의심하기도 하며 지내게 된다. 그래서 아동관에 대한 물을 청탁받았을 때 상당히 부담스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나의 답답한 마음을 글로 풀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1. 내가바라는 아동상

- 자기 표현을 잘 하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아이
- 자율적인 아이
-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집중력을 가진 아이
- 자연을 사랑하는 아이
- 전통문화를 즐길 줄 아는 아이

2. 각목표에 따른이런저런 생각

- ① 자연을 사랑하는 아이라는 목표는 교육프로그램의 선택과 실현 속에서 담보해 낼 수 있다.
 - 텃밭 가꾸기/ 잣은 나들이/ 자연물을 이용한 요리활동, 미술활동 등의 교육활동
 -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이러한 자연물들을 통해 여러가지 활동

을 함으로써 이를 의미있게 한다.

- * 이 때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나들이 비용의 문제, 안전의 문제, 지저분한 것을 싫어하는 부모를 설득하는 문제, 야외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문제 등이 있다.

② ‘전통문화를 즐길 줄 아는 아이’는 우리나라 고유의 신명을 가진 아이를 말한다.

이는 우리나라라는 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일년내내 우리나라 전래 노래, 악기, 춤, 이야기, 조형활동 등을 접할 수 있도록 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이러한 부분은 간헐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특별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 내야 한다.

예로 동물이라는 단원일 때도 동물이 나오는 전래 풍요를 부른다거나, 우리 나라의 토종 동물들을 주로 공부하거나 신체 표현을 장고 장단에 맞춰 한다거나 일상적인 우리 음악의 활용을 할 수 있겠다.

- * 이 때의 어려운 점은 단원과 알맞은 활동이 많지 않아서 국악활동과 단원이 분리될 수 있다는 점, 전통 조형활동에 드는 재료가 구하기 어렵고 유아프로그램으로 개발된 것이 적다는 점, 교사가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얼마나 용으로 체득하고 있나 하는 점과 부모들에게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알깨워야 하는 어려움 등이 있다. 전통문화를 체험하기가 아직도 어렵다는 점도 들 수 있겠다.

③ 자기 표현을 잘 하고 남과 어울려 살 줄 아는 아이, 자율적인 아이는 모든 유아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다 말한다고 본다. 어느 원장님이나 “아동중심”을 말하는 것과 같이...

▶ 교사의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을 때

- 교사가 유아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한다.
- 교사가 아이들을 골고루 사랑하려고 노력한다.
- 어떤 교사들은 못 잘 입고 말 잘 듣는 아이를 예뻐하고 어떤 교사들은 일을 잘 저지르더라도 바지런한 아이를 좋아하기도 한다. 어떤 교사들은 지저분하고 말쑥부리는 아이를 싫어하고 또 어떤 교사들은 깔끔 떨고 개인의 생활을 중시하는 아이를 못참아 하기도 한다. 이는 모두 교사의 가치관의 문제로 교육의 목표, 이상으로 추구하는 “아동의 상”과도 관계가 있다. 때때로 투철한 아동관을 가진 교사가 더 편애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은 민감해서 교사가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교사의 애정을 눈치챈다. 교사가 다양한 아이들을 마음 깊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 교사가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주려고 노력한다.
- 교사가 아이들과 마찰이 있을 때 합리적으로 설득하려고 노력한다.

▶ 일과 구성에서 살펴 보았을 때

- 아이들이 씻고, 노는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아이들이 소그룹이나 개별활동을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대그룹 활동 시간이 많은 경우는 없는가? 동화든 게임이든 무용이든 연령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20분 이상은 무리라고 본다.
-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다.

가고싶은 특별활동실, 보고 싶은 비디오, 먹고 싶을 때 먹는 것 등(이것이 1:20의 교실 상황에서 참 힘이 든다. 좁은 교실에서 한꺼번에 먹고 치워야 청결을 유지할 수 있고, 교사가



교사의 의견

밖으로 나가자고 할 때에는 몇몇 아이들이 꼭 하던 활동을 멈추고 정리를 해야하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기관의 단점을 보완할 지가 관건이다.)

- 유아들이 자유롭게 완전히 주도적으로 놀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한다.
- 유아들이 교사의 보호와 적절한 개입을 통해 배우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시간도 배려한다.

▶ 프로그램에서 살펴 보았을 때

- 교육을 계획 할 때 아이들의 요즘 흥미로부터 출발한다.
-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최대한 통합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가능한 시설은 주제접근법 등도 창의력/자율성을 키우는데 유효하다고 본다.
- 교사가 아이들에게 다양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준비해야 한다. (여러가지 자료 준비, 전학 준비, 부모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준비...)
- 활동에서 유아들의 창의력 주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사는 활동에 있어서의 개입의 정도, 준비의 정도를 다양하게 조절하며 활동해야 한다. (예: 활동을 이용한 미술활동의 경우, 때로는 활동과 부재료만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도 하고, 때로는 두꺼운 종이를 주고 부조를 유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사가 미리 준비한 뼈대를 주고 "사람을 만들어 보자"하기도 하고, 형아들의 작품을 제시해 보기도 한다. 무조건 "마음대로 하세요" 하면 성취도가 떨어지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가 어렵고, 너무 세세하다 보면 "선생님, 다음은 어떻게 해요?"라는 질문을 계속 받아야만 한다.)
- 아이에게 있어서 다른 아이들은 좋은 자극이고 선생이라는 점을 이용한다. 어떤 활동을 할 때 교사의 의도와 너무 다르게 활동하는 아이들은 다른 프로그램이나 후속 프로그램을 교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셈이다.
- 한 가지 활동을 하더라도 깊이 있게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실시한다.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고 항상 "뽀뽀를 치는 아이들"도 의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 동적인 활동, 정적인 활동, 개인적인 활동, 그룹활동을 골고루 운용한다.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교사와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시간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매우 즐거워 하는 시간이다.

포괄적으로 내용을 담아냈다고 보다는 내가 요즘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참 많다.

내가 바라는 아이와 내가 키우는 방법이 분리될 때 교사는 힘이 든다. 현실적인 조건이 분리를 시키기도 하고, 교사가 타성에 젖어 일 해도 그렇다.

어떤 날은 유난히 아이들이 활기차게 활동하고, 교실은 평화롭게 느껴지고, 아이들이 다들 행복해 보인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이런 날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점점 발전하고 좋아지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 매일 매일 이런 기분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 글을 마칠까 한다.



연수기 1

국제린더가르텐 영아보육 세미나 연수기

김경애 · 부산 불레지회, 포구나무 어린이집

내가 스위스까지 가게될 줄 나도 몰랐다. 유럽을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들과 관련하여 그것도 저렴한 경비로 갈 수 있다니 너무 좋은 기회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막상 갈려고 하니 걸리는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어린이집에 한 사람이 빠지는 것 - 그것도 영어반을 맡고 있는 사람이(영어를 낯가림이 심하다) 빠지는 것이 제일 큰 고민이었다.

비디오를 통해서 본 모습이나, 책, 강의를 통해 들은 발도르프 교육내용은 참 매력적이며 내가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부분들에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나라처럼 학습지를 요구하고, 글자 숫자 등 인지적인 부분의 발달을 강요하는 분위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놀이속에서의 교육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 속에서 교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보고 싶었다.

어린이집에서 몇 번의 교사회의를 거치며 내가 빠졌을 때의 대안들을 나름대로 마련하고 서둘러 향했다.

출발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공항에 도착하니 여행 기분이 났다. 환전하고, 공항 이용권도 싸고(우리나라에만 있었음), 짐 맡기고, 여권심사하고, 면세점도 구경하고, 비행기를 타고 있으니 오늘이 정말 역사적인 날이구나 싶었다. 땅에서 떨어져본 역사가 없는데 공간을 초월하여 공기 중에 떠 있게되다니! 그것도 몇 시간 후면 지구의 반대편인 스위스에 도착해 있을 걸 생각하니 꼭 타임머신을 타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노트를 꺼내어 오늘은 내 생애에 있어 역사적인 날이라고 적었다. 비행기 밖으로 노을 끝자락만 보이더니, 비행기는 한반도의 서쪽 불빛들을 뒤로하고 캄캄한 어둠속으로 들어갔다. 자기 아이들이 걱정될텐데도 잘 잤다 오라고 격려해주

는 우리반 부모들이 떠 올랐다.

홍콩을 경유하여 스위스의 우리가 북을 도르나에 도착하니 우리나라 시간으로 8일 오후 6시. 여기 시간으로는 8일 오전 10시. 집에 가서 쉬어야 할 시간에 또 다른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우습다. 우리는 출몰 밤을 따라 이동한 셈이다. 비행기에서 잘 잤기에 다행이지. 짐 정리하고 점심 먹고, 먼저 와서 교사연수를 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연합회 원장님들(10여 명)을 찾아갔다. 먼저 하던 내용을 중간에서 들어 연결이 잘 안되지만 세미나 시작하는 9일 오전까지 민보련 원장님들 연수를 지켜왔다.

9일 오후 세미나를 시작하기 위해 괴테아눔에 갔다. 곧 사람을 삼켜버릴 것 같은 입구를 한 건물이 우리를 맞이했다. 진리, 정신적인 힘이 동양에서 와서 서양으로 널리 퍼지게 한다는 의미에서 동쪽은 창이 많으나 뒤편하고, 서쪽은 우리를 삼킬정도로 크고 묵직한 느낌의 분으로 만들었다. 이 건물은 건물모양도 그 의미가 있지만 가는 곳곳, 유리창, 그림, 등등이 나름의 의미를 갖고 만들었다. 우리는 뭔지 잘 모르지만.

저녁, 영국사람이 '여는 강의'를 했다. 아동기의 권리와 육화에 관해, 아동기의 권리란 말은 많이 들었지만 육화는 뭘 말하는지?

강사가 영어로 이야기를 해, 통역하는 분이 독일어로 통역하는 걸 듣고 다시 한국어로 통역하는 힘든 과정을 거치며 평소 접해보지 않은 용어들에 강의 전체 내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며 우리의 세미나는 시작되었다.(이후 모든 전체 강의는 독일어로 하였고, 영어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독일어로 통역하는 시간을 가졌음)

오전 전체 강의, 워크샵, 오후 워크샵, 전체 토론, 저녁 오이뮈트미 공연과 인지화 작업에 대한 보고라는 딱딱한 일정 속에 아침 8시에 밥(밥은 빵이었다) 먹으러 괴테아눔에 가 저녁 10시 즈음 자러 돌아오는 하루하루를 보냈다. 점심 시간 너무 피곤하여 잠시 자러 오거나 먹는 것이 맞지 않아 라면을 끓여 먹으러 숙소를 오가기도 했지만 힘든 일정에 맞추기 위해 무언히 노력하였다. 그러면서 처음엔 낯설기만 한 강의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되고 함께 참석한 사람들과도 눈인사를 할 정도가 되었다.

세미나를 듣는건 힘든 작업이었지만 새로운 내용과 영아의 발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들은 우리를 흥미롭게 하였고, 연수 방법들이 아동의 입장이 되어 아동을 이해해 보는 방법으로 하여 재밌기도 하였다.

닷새 간의 일정을 마치고 독일로 갔다. 같이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이 우리를 독일로 데려가기로 했다. 기차를 타고 갈 생각이었는데 첫날 우리를 독일로 초청한 분이 오시더니 섭외를 한

모양이다. 그 분과 독일로 우리를 데려다 준 분이 독일에서 우리가 있을 동안 늘 우리를 데리고 다녔다. 우리를 배려해 주는 따뜻한 마음씨에 참 고맙았다.

독일에서는 발도르프 유치원을 방문하여 하루 일과를 지켜왔다. 유치원은 유리가 많은 다층 집. 견고해 보이지만 수수하게 보였다. 나무들이 집을 두르고 있어 전체적으로 아늑해 보이기도 하고, 나는 영아만을 전담하여 하는 우리나라의 놀이방 같은 곳을 견학했다. 그곳은 아이가 세 명으로 교사가 혼자 집에서 아이를 보는 형태였다. 여기서는 놀이방도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한단다. 교사는 아이들이 다 모이면 아이들과 산책을 갔다. 한 명은 유모차에 몸을 걸려서, 도로를 따라 가니 가까이 공원이 있었다. 공원을 따라 제법 들어가니 호수도 있고, 영화에서 나오는 산책코스 그대로였다. 날씨도 춥고 다리도 아파 쉬기를 기다렸는데, 아이들과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쉬지 않고 걸더니 호수에 가서야 오리를 본다고 잠시 앉는 것이다. 시간이 제법 흘렀을 텐데 교사도 아이도 지친 표정이 없다. 한참을 돌아 집에 돌아오니 1시간 넘게 걸렸다. 그리고 간식을 먹더니 조금 있다 아이들 대변을 보게 하고 한 명씩 잠을 재웠다. 교사는 거의 매일 오늘과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한다고 했다. 영아기에는 반복적인 활동 속에 안정감을 갖기 때문에 어른에게는 힘이 들지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며, 아이들과 지낸다고 한다. 혹 부모들이 프로그램을 요구하면 생활이 곧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했다.

각자 어린이집 견학을 마치고 다시 모여 이런저런 질문과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프라이버그 거리를 구경하고 독일 맥주도 마시며 우리의 여행을 정리해 갔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서 일할 것을 생각하니 막막했다. 보육에 대해 아무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우리의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같이 일하는 교사들과 같이 들었으면 이야기 할 것이 참 많을 텐데, 우리의 현실에서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부에서는 21C를 앞두고 국가 경쟁을 키워야 한다, 인재를 키워야 한다 등 많은 구호를 외치지만 그것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란 생각을 했다. 우리의 보육현실이 선진국과 비교가 안되는데 우리의 국가 경쟁력이 생길 수 있을까? 잡다한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21C를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 보육현실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되지 않는가?





연수기 2

일흔 간의 짧은 메모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Dignity of the Small Child
(영아의 존엄성에 대한 국제회의)를 다녀와서

김진숙 · 서울 남부, 새터어린이집

10월 7일 목요일

비행기 안, 출발할 때는 해가 쨌는데 서쪽으로 향하면서 노을을 볼 수 있었다. 빛이 환상적이다. 그리고 조금씩 밝아진 하늘.

홍콩 공항, 수유실이 있는게 인상적이다. 장애인실도 따로 있다. 홍콩으로 들어올 때 아경이 끝내줬다. 굉장히 화려하다.

10월 8일 금요일

한국 시각은 오전 11시, 스위스 시각은 오전 4시. 모스크바 항공을 타고 있다. 별이 예쁘다.

7시 20분 취리히 도착. 9시 20분 바젤 도착. 10시경 DORNACH 도착. 짐 풀고 밥 먹고 민보련이 연수를 하고 있는 Rehreseminars로 가서 이국에서의 반가운 만남을 갖고 kindergarten에서 연필류 그림과 자유 놀이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말로만 들던 눈, 코, 입 없는 인형을 봤다.

숙박하는 곳은 아주 예쁘다. 동화에 나오는 집 같다. 이불 색도 예쁘고 아기자기 하다. 탁자, 그림, 스탠드, 초, 서랍장...

뾰족 지붕, 다각형의 집. 스위스의 맛이 나는 마을이다.

10월 9일 토요일

10시 30분부터 민보련에서 하는 인지학에 대한 강의 듣다.

12시 저쪽집에서 점심을 먹다. (저쪽집은 윤선영, 유정은, 박찬주 선생님이 묵는 곳) 밥과 라면, 김, 꿀뚜기 젓, 말치볶음, 김치. 생각보다 훌륭한 식사다.

Goetheanum 견학. 예술적이다. 건물도 의미가 있다. 웅장한, 안으로 끌어들이는 느낌. 벽면, 장식, 계단 하나하나가 멋지다. 색깔도 감칠맛이 없고 온화한 느낌이다.

8시 첫 강연. 육화(발도르프교육에서 쓰는 용어)와 아동기의 권리에 관한 내용. 통역을 통해 듣는 어려움이 있다. 강연후 다시 강연 요지를 들려주는 윤선생님. 대단한 열정이다.

마을을 둘러보고 싶지만 아마도 오늘로 봐서는 불가능할 것 같다. 아쉽지만 공부에 신경쓰자.

10월 10일 일요일

피곤하다. 밤이 되니 졸음이 쏟아진다. 강의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고 식사시간이 2시간씩 되는데도 힘들다. 식사가 생각같지 않아 모두 당혹스러워했다. 아침은 성대했다. 빵과 음료, 치즈, 과일, 샐러드, 버터와 꿀. 점심은 오트밀 같은 종류, 샐러드, 탄산수, 주스, 슈크림(?). 저녁은 마카로니 국수, 샐러드, 스프. 빵은 항상 있다. 먹을 만 했지만, 포만감에 곁들여진 그리고 고기를 기대했던 우리에겐...

강의 내용은 어려운데 많다. 정신세계, 영, 탄생 과정들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정말일까?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바탕에서 교육방법이 나오는 걸텐데, 교육방법은 쉽게(?) 동의되지만 바탕에 깔린 철학은 가슴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인지학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할 것 같다. GROUP WORKSHOP은 재미있다. 오전에는 리듬적인 하루일과, 주, 달, 해의 구성을, 오후에는 영 아기의 갈등, 싸움, 공격적인 행위에 대하여 workshop을 했다.

내일부터는 좀더 자유로워야겠다. 스위스! 알프스만 생각나는군.

오이뤼트비 공연. 색이 환상적이다. 음악의 난해함, 동작의 의미를 해석못함이 몸의 피곤함과 겹쳐 힘든 시간이기도 했지만 아름답다.

10월 11일 월요일

이제 조금씩 내 생각이 난다. 받아들이느라고 온 정신이 집중되어있었는데 workshop을 하며 조금씩 내 정신으로 돌아온다. 밤에 토론시간이 있어서 조금은 정리 안되고, 모르는 게 넘어가고, 혼란스럽고 하던 기분이 해소되었다. 돌아간 뒤에 무언가를 남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남는다. 노트엔 가득 강의 내용이 적혀있지만 이해하기 힘들고 집중이 안된다. 차분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제 하루와 만나질의 시간이 남았는데 좀더 적극적이어보자.

발도르프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를 잘 맺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같이 온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바란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도.

10월 12일 화요일

이제 많이 익숙해졌다. 혼자 다녀도 어색하지 않고, 아쉽다. 이제 내일 오전밖에 남지 않았다. workshop을 하는 것도 놀랍다. 전체를 짚어주면서 개별로 접근하는 것, 그리고 인지학이라는 것으로 하나로 엮어지니까 3일동안 계속 강의를 듣고 workshop을 하면서 조금씩 이해가 깊어진다. 그리고 주제별로 이야기 할때도 이해가 쉬워지고. 정말 어디나 아이는 같고 보육의 문제는 비슷하다. 교사로서 느끼는 점도 비슷하고 아이를 대하는 태도, 자세, 방법들도 비슷하다. 발도르프라는 심오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는 문제들이 있다. 발도르프 교육기관이, 인지학이 아니라 하더라도 똑같이 겪고 느끼는 문제들.

저녁시간에 각국의 현황을 이야기하는 시간에 한국의 상황에 대해 발표를 했다.

내일은 사진을 찍어야지. 사람들이 왓지않한 분위기, 예쁜 집...

모두 피곤한가보다. 다들 잠들었다. 마지막 밤을 멋지게 자자.

10월 13일 수요일

세미나는 아쉽다. 언제 시간이 지나갔나 싶게 빨리 지나갔다. 한국의 상황을 알고난 후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게 대한다.

독일의 FREIBRUG에 왔다. 세곳의 집으로 나누어 묵는다. 우리집 아저씨는 줄인형을 한다. 직접 인형을 만들고 공연도 한다. 그리고 동물의 뼈도 있고 모형을 만들기도 한다. 작업실에서 직접 나무를 깎고 흙으로 빚고 만드는 게 좋아보인다. 아이들이 네명이 있다. 폴, 에밀리, 아요나, 세바스찬.

체조하는 데 참가했다. 공놀이, 게임 등. 인상적이다.

10월 14일 목요일

킨더가르텐과 놀이방으로 나누어 참관을 했다. 영아를 돌보는 가정 놀이방에 갔는데 아이가 돌밖에 안된다. 13개월과 28개월. 산책을 하고 아이들이 자는 동안 선생님과 짧은 영어로 떠들거리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1시 30분이 되니 아이들이 간다. 여기에는 짧은 시간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많단다. 한국에는 7시 30분까지 보육을 하고 부모들도 7시까지 일을 한다고 하니 놀라워한다. 참관후 킨더가르텐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거리 구경을 하고 '할머니와 부엌'이라는 주점에서 독일 맥주를 마셨다. 10시가 넘어 들어왔는데 주인집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다. 10시면 취침시간인데. 모두들 친절하다.

오늘이 유럽에서의 마지막 밤이다. 오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단 하루라도.

10월 15일 금요일 그리고 16일 토요일

끝까지 가봐야 안다더니 정말 맞는 말이다. 지금까지 너무 순탄했는데 마지막에 삐끗거린다. 덕분에 좋은 일도 생겼지만, 두명이 홍콩에서 서울로 오는 비행기 시간이 다르게 되고 짐이 바뀌어서 공항에서 한참 해결하느라고 애를 썼다. 물론 말이 통하는 윤 선생님이. 이런 삐끗거림으로 홍콩에서 서울로 올 때는 BUSINESS CLASS로 왔다. 이전 생생하게 전해야 한다고 모두 의견일치를 봤다. 좌석의 편리함뿐 아니라 서비스도 다르다. 음식도 다르고 심지어는 화장실도 다르다. 가격차이가 얼마나 날까?

노트를 다시 읽어본다. 정리가 될 듯 하면서 의문만 계속 생긴다. 어린이집에의 적응. 한달에 한번씩의 모임. 윤선생님이 정말 어린이집에 방문할까? 하겠지.

10월 17일 일요일

잠을 거의 못 잤는데 잠이 쉽사리 들지 않았다. 돌아와서 잠꼬대는 뭐라도 씌운 듯이 TV를 봤다. 정말 아무 생각없이 죽 빠져 버렸다. 그리고 잠. 16시간 동안 잠에 빠졌다. 믿기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경해 선생님은 체육대회가 있다고 한 것 같은데, 혹시 나만 편안히?

꿈 같던 일들이었지만 꿈이 아닌 현실이었음을 일깨워 주는 누군가가 있겠지?

그녀의 삶이 궁금하다.

편집부

이런 글에는 자신에게 소개된 남(여)친(반)임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을 찾아 수원을 다녀왔습니다. 수원역에서 버스를 타고 평독에서 내려면 골목 안에 미타를 켜 단층의 평독여원이임이 보였습니다. 한문 나어로 백간 집사의임은 독편 기이 보이네요. 식객 데다가 '학~! 이기원 반반임 만나고 싶어요!'

• 우선 남미영선생님이 공개적으로 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수원까지 왔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미영 선생님이 왜 내가 보고 싶다고 했는지 궁금하군요. 반갑기도 하지만 솔직히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하네요. 요즘은 지면을 통해서 제 소개를 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조금 부담스럽고 그래요. 그냥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 좋아하는데.... 내가 보고 싶으면 수원으로 달려 와야지.

• 주변에서 얘기를 들자니 선생님 수첩에는 좋은 글들이 많이 적여있고 사람들에게 그 글들을 적은 짧은 편지를 자주 보낸다는데...?

제가 글 재주가 짧기 때문에 일단 좋은 글이 눈에 띄면 열심히 적어요. 그리고 좋은 글은 다른 사람과 많이 나누고 같이 느끼고 싶어요. 제가 원래 뭐든지 나누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 좋은 글 중 하나를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여기서 딱 이것이다라고 소개하기는 좀 그렇고 「좋은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책이 있는데 그 책속에 마음에 드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한 번 읽어보세요.

• 보육교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91년도에 시작했어요. 처음 수원에 있는 '용기종기'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다 '97년에 잠깐 외도(?)를 했죠. 수원여성회에서 간사로 1년간 일을 했어요.

• 보육교사를 하다보면에는 나랑 좀 궁합이 안맞는다고 할까 혹은 아무리 교사지만 솔직히 아이가 조금 싫거나 미울 때가 있잖아요?

글쎄 딱히 미운 아이거나 싫은 아이가 있지는 않아요. 순간순간에 따라 예쁘기도 하고 좀 알뜰기도 하죠. 근데 공약을 납품하는 아이 있죠? 말로는 뭐든지 약속하는 아이. 그런 아이



에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좀 고민스러워요. 마음에서 우러나와 악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감하게 될까봐 걱정이에요.

◆ 그럼 예를 때는?

예를 때야 말로 정말 수시로고 순간순간인 것 같아요. 요즘은 불쑥불쑥 뜬금없이 저한테 와서 몇마디 얘기하고는 휙 달아나는 아이들이 참 예뻐요. 오늘도 한 아이가 와서 그림으로 편지를 보내고는 금방 달려와서 "달맞이꽃 선생님! 빨리 편지주세요"하며 답장으로 이러이러한 그림을 그려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아이들은 정말 순간순간 어른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 여기서 잠깐

평동 어린이집에서는 밭이름이 모두 들꽃이름이랍니다. 파래밭, 잔디밭 등등. 원장실 이름도 달맞이꽃이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원 선생님을 달맞이꽃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주말 이름은 머느리밭꽃이구요. 사실 여기 17기에 붙여진 들꽃 이름들 보면서 평동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자정정화적인 교육철학을 살짝 엿볼 수 있답니다.

◆ '91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아이들과 지내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는 누구인가요?

솔직히 용기증가를 시작할 무렵을 생각하면 그냥 미안함만 가득해요. 실수도 너무 많았고 제가 전공자가 아니다보니 미리 개인적인 준비를 하고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 '94년 용망 풀담(영아) 어린이집에서 만난 가족들이 많이 생각나요. 지금도 그분들과고는 '용망풀담 그리고'라는 친목모임에서 1년에 4번 정도 만나요. 그 중에 김운덕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지

금은 7살인데 그 아이가 6개월 때부터 만났어요. 아이가 많이 커버렸는데도 서로의 교감이 느껴져요. 그렇다고 요즘 보면 많은 얘기를 하지 않는데도 그냥 통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아마 한참이 지난 후에도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 (조금 뒷문지만 혹시 선생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지...?)

운덕이 엄마에기로는 그 아이도 가끔씩 제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가끔 만나면 반가와하고....

아마 영아때부터 만나서 그런가 봐요. 확실히 영아때부터 만난 아이들이 오래 남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친목모임에서 아이들이 커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아요.

◆ 오랫동안 평교사를 하다 원장으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평교사를 하다가 바로 원장이 된 건 아니구요. 여성회 일을 1년 한 후에 원장이 된 거죠. 1년간 다른 곳에서 일을 하다 오니까 안에 있을 때는 잘 볼 수 없었던 일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지만 반면에 교사로서의 감을 잡기가 조금 어려워 다른 교사들에게 자주 물어봐요. 조금 불안하기도 하구요. 내가 이게 잘 하는 건지 아닌지, 혹시 뭐썩박썩 되어버리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면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하고 다른 교사의 얘기를 많이 듣고 의견을 모으려고 하죠. 평동어린이집은 다른 국공립어린이집과는 조금 달라요. 우선 수원여성회가 위탁을 받았고 수원지회 회원 대부분이 교사들이기 때문에 평동 나

름의 민주적인 운영방식을 가지려고 서로서로 노력하죠. 그리고 자율권이 제법 보장되는 곳이에요. 물론 시립시설이기 때문에 공적인 한계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는 가족적인 분위기라 좋은데 일에 대한 평가와 점검이 비흡해서 아쉬워요. 제 개인적으로 그런 능력이 모자람을 가끔 느끼죠.

◆ 앞으로도 계속 평동어린이집에서 일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이상하게도 91년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무엇인가를 새로 만드는 일을 했어요. 용기증가에서부터 용망풀담도 그렇고 평동어린이집도 그렇고... 어쨌든 제게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혹시 앞으로도 계속 무엇인가를 창조하면서 사는 게 내 운명이진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 보통 성인 여성을 나눌 때 보면 미혼이나, 미혼이나로 나누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꼭 미혼이라고 얘기하느냐? 아직 결혼을 못한 게 아니고 안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비혼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선생님은 미혼이세요 비혼이세요?

아유, 어렸을 때 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무작정 결혼하기에는 너무 커버린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예 혼자 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구요. 주위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게 걱정되나 봐요. 어떤 분은 35살이 넘으면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직.... 그리고 자기 관리를 못해, 외롭다는 이유만으로 결혼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마 가정을 꾸리는 일은 제 삶의 많은 일 중 하나일 거예요. 물론 보육교사라는 직업이 결혼 또는 부모의 경험이 있으면

더 좋더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저처럼 홀몸으로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겠죠.

어른이 되어가면서 보니까 기혼자들은 그들끼리, 미혼이나 비혼들은 또 그들끼리 점점 관계들이 나누어 지더라고요. 서로의 공감대가 달라져서 그럴거예요. 저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는데 아니라 그 관계를 넘어서는, 서로 악간의 공감대와 관심의 차이가 있더라도 흐뭇하게 만날 수 있는 관계들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기혼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위해 마음을 열고자 해요. 가정으로 점점 들어가는 게 아닌 핏줄이 아니더라도 따뜻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었으면 해요.

* 이번 호에는 이기원 선생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어디로 갈 지 궁금하시죠? 다음에는 이기원 선생님이 직접 찾아 갑니다. 조금 먼 곳에 있는 분인데 혹시 나하는 거대로 다음호를 기다려 보세요.



평등 가족이 얘기하는 기원 선생님

기원선생님은 세사 걱정치나도 없어 보여요. 언제나 웃는 얼굴에 사람들과 할언니같은 피스함이 있거든요. 추진력까지 다림도 끝내주고요. 개미가 미모해지?

기원선생님은 평등어린이집의 "까"이리구요. -지윤-

평등어린이집에서 원장을 하고 있는 것이 신기하면서 느껴는 부담보다는 영혼에 퍼지는 안정감이 느껴진다. 같이 일한 지 조금 오래 되었지만 1년 일해도 1년 일한 듯, 1년 일해도 1년 일한 듯인 분위기다. 새로 만난 사람에게는 아주 오래된 듯 친근하고, 오래 만난 사람에게는 새로움을 주는... 이런 사람 무척 좋아하는 인간적인 사람. 선배, 교사다. 그런데 요즘은 몸도 마음도 조금은 무겁게 느껴진다 왜일까? -주영-

얼굴만큼이나 마음씨도 넓고 너무 좋은 기원선생님이라네요!

항상 웃는 얼굴로 모든 사람들을 대해 무슨 이야기든 해도 설마려를 물어 주시는 선생님. 모든 일에 힘내세요. -정현-

신곡보육교사회의 새롭게 떠오르는 별★이기원선생님.

복합적인으로 후대인 것을 감동(?)합니다. 좋은 능력을 발휘해서 보육교사회를 빛내주세요.

반갑반갑 -경숙-

신곡보육교사회의 리더가 되고나 하네요. 너무 많은 감동을 쓰셔서 이런 글을 보기 너무 기쁘게요. 고맙도 늘 신경써서 교사회의 일을 맡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이름으로 3행시를 이어보겠

이이루고

기원선생님

원원하는 꽃에 고대기 서있다. -금주-



어린이와 건강

중이염에 대하여

고시원 · 홍은소아과 소아과 전문의 원장

1. 중이염이란 무엇인가?

귀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외이(外耳)는 귀바퀴와 귀구멍(외이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이(中耳)는 고막안에 공기가 차 있는 부위를 말하며 내이(內耳)는 외부 자극을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하는 부위를 말합니다.

중이염이란 고막안의 중이 부분에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 감기를 앓다가 후유증으로 발생하는데 갑작스럽게 귀가 아프다고 하며, 열이 발생하고, 전신 불쾌감과 함께 청력의 감소를 호소하게 됩니다.

아주 어린 아기는 통증을 호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하게 보채고 귀를 잡아 당기거나 보채게 되며 설사, 구토, 무력감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기들이 귀를 잡아 당기거나 만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습관적으로 만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최근에 감기나 열이 없었다면 중이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열이 없이 중이염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아기가 이유없이 심하게 보채는 경우에는 항상 중이염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니다.

중이염은 소아에서 흔한 염증일 뿐만 아니라 잘못 치료하는 경우에는 뇌수막염, 뇌농양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만성으로 진행하면 불이 고막 안에 차게 되어 청력장애가 발생하고 언어발달이나 학습장애에 장애를 받을 수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중이염이 왜 생기는가?

귀에 물이 들어가면 중이염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귀 안으로 물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고막이 가로 막고 있기 때문에 고막이 터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이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귀와 코는 유스타키안 (Eustachian) 튜브라는 조그마한 통로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데 이 튜브는 평소에는 닫혀 있으나 삼키거나 씹거나 하품을 하면 열려서 귀 안의 압력과 외부의 압력을 같도록 유지해주며 귀 안에 생긴 분비물을 튜브안에 있는 섬모작용을 통하여 코 뒷부분으로 배출해 주어 귀를 청소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튜브가 막히게 되면 분비물이 배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귀 안에 음압이 형성되어 분비물의 역류가 일어나 귀 안에 염증이 생기게 되며 귀 안에 물이 차게 됩니다.

특히 감기로 유스타키안 튜브 작용에 문제가 생기거나, 코를 풀거나, 삼키거나, 씹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심하게 울게 되면, 코 안에 있던 병균이 유스타키안 튜브를 통하여 귀로 역류되어 중이염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비행기 여행을 하거나 깊은 물에 다이빙을 하는 경우에도 압력차이가 생겨 중이염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으며, 방안에 담배 연기가 있는 경우에도 귀 안의 분비물 배출에 관여하는 섬모의 운동이 둔화되어 중이염이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아기들은 면역이 약하여 감기가 자주 걸릴 뿐 아니라 성인에 비해서 유스타키안 튜브가 짧고, 넓고, 수평적이어서 코에서 있던 병균이 귀 안으로 잘 전달되어 감기에 걸리면 중이염이 잘 걸립니다.

중이염이 잘 발생하는 나이는 6개월-3세 사이이며, 3세까지 85%가 한번 정도는 중이염에 걸리고 50%가 두번 이상 걸리게 되며, 1세 이전에 걸린 경우에는 재발 및 만성화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중이염의 치료는?

급성중이염은 치료를 해주지 않아도 70% 정도에서 우리몸에 있는 면역물질에 의해서 1-2주내에 자연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항생제로 10일-14일간

치료를 해주어야 하며 진통제, 해열제, 국소 열치료 등도 도움이 됩니다.

약을 복용한 후에는 증상이 바로 좋아지는데 만일 약을 먹어도 24시간내에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합병증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약을 복용한 후에는 증상이 바로 좋아졌다고 해서 약을 더 이상 먹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며, 치료가 끝난 경우라 할지라도 2주 후에 다시 병원에서 청력검사, 고막검사 등 다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이염을 치료한 후 급성 증상이 없어진 후에 고막 안에 물이 차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합병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흔히 있는 일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귀 안에 약을 떨어뜨리거나 소독을 하는 것은 고막 밖에 생긴 외이염 등에 효과가 있고 고막 안에 질병이 생기는 일반적인 중이염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중이염이 약으로만 치료가 모두 되는 것이 아니라 약에 내성이 있거나 알레르기 등으로 약을 먹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막절개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귀안에 물이 차게 되면?

일반적으로 중이염을 앓게 되면 고막안에 음압이 형성되어 주위 조직에 있는 물이 스며 나오게 되어 고막안에 물이 차게 되는데 중이염에 처음 걸렸을 때 40%에서는 4주까지 물이

차게 되며 10%는 3개월 이상 물이 차게 됩니다.

물이 차는 기간에 따라 급성(3주 이내), 아급성(3주-3개월), 만성(3개월 이상)으로 구별하는데 전신 증상은 없으나 청력이 감소되어 행동장애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나 열이 없이 고막 안에 물이 차는 것을 삼출성 중이염이라 하는데 이것은 급성중이염 후에 생기거나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는 귀에 물이 찬다 할지라도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자연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청력감소로 인해서 인지발달, 언어발달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청력손실이 심할 때, 너무 어린 나이, 양쪽이 만성일 때, 고막에 변화, 어지러움, 화농성 호흡기 감염, 재발이 잘 될 때에는 치료를 해 주어야 하며 항생제를 10-30일 정도 복용해야 합니다.

보조요법으로 하루 수차례 코를 막고 힘껏 코로 바람을 세게 불어 넣으면 유스타키안 튜브가 열려 공기가 통하게 되어 치료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청력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으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4-6개월 이상 지속되고, 양쪽 청력이 감소되어 있을 때는 고막절개술이나 환기 튜브를 삽입하기도 합니다.

만성중이염은 고막이 터져서 고름이 귀를 통하여 계속 나오며 청력이 감소된 경우를 말하는데 전문적인 검사와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귀안에 진주종이라 하여 뼈를 파괴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수

술을 해야 하며 고막 성형수술과 함께 염증이 생긴 뼈 주위를 깎아 주는 수술 방법이 있으므로 전문적인 검사 및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5. 중이염이 자주 재발하는 경우에는?

감기에 걸리기만 하면 중이염이 자주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6개월에 3번 이상, 또는 1년에 4번 이상 발생시 중이염이 재발이 잦다고 표현을 합니다.

재발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기들에 따라서 일반 중이염처럼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정말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이염이 자주 재발되는 경우에는 유발인자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모유수유를 최소한 4개월 이상 해주는 것이 좋으며, 아기가 있는 실내에서는 담배를 삼가고, 유아원에서 생활하면 감기 등이 질환을 잘 앓을 수 있으므로 독감 예방 접종을 해 주는 것이 좋으며, 알레르기 비염등 기존 질환은 치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노리개 젓꼭지를 오랫동안 빨게 되면 중이염이 잘 걸리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자주 재발되는 중이염의 경우에는 노리개 젓꼭지를 가능하면 일찍 떼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는 일반 중이염과 비슷하지만 항생제를 예방목적으로 수개월만 특히 겨울철에 먹여보기도 하며 고막절개술이나 환기 튜브를 삽입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데노이드 수술은 재발되는 중이염에 효과는 없습니다.



서울 튼튼이어린이집 이야기

● 과일 그리기

교사 : 여러분, 참외, 수박, 포도를 뭐라고 하지?

튼튼이들 : 과일이요~

교사 : 그럼 우리 과일을 그려볼까?

튼튼이 5살 : 선생님, 단무지 그려요.

튼튼이 4살 : 단무지가 과일이나? 김밥 만들 때 쓰는거지.

● 산하 눈은 고무줄?

선생님 안경을 아이들이 가지고 놀고 있었다.

선하 : (안경을 쓰고 으쓱거리며) 산하 눈 커. 산하 눈 커.

교사 : 산하야! 눈이 큰 사람은 안경 안써도 돼.

선하 : 산하 눈 작아. 산하 눈 작아.

● 자동차

문상(4세) : 선생님! 기성이가 내 자동차 뺏어 갔어요.

교사 : 몰지 말고 가서 자동차 달라고 해.

문상 : 기성아! 달라. 달라. 자동차 달라.

교사 : ?!?!

● 겨울이 오려나 봐요

아이들이 놀다가 환경판이 부서져서 환경판에 붙여 놓은 나뭇잎이 떨어졌다.

6살 환이가 떨어진 나뭇잎을 쓸어 담으며 하는 말.

“선생님 나뭇잎이 떨어지니까 겨울인가 봐요.”

- 올해 튼튼이만 유난히 겨울이 빨리 왔대나 어쨌다나

● 튼튼이의 사오정

교사 : 선생님, 내일 윤희(대학생 자원봉사자) 온대요?

작우(5살) : 선생님! 내일 정말 눈 와요. 와! 신난다

봉재(6살) : 나도 ‘눈’ 아는데....



“너는 보모를 운중게 참 잘 만났구나.”

박미라 · 서울 우리아이들의나라 우리어린이집 자모

내가 둘째 아이를 봐주시던 아주머니에 대해 한 자담하고 나면 친구나 동료들은 부러운 듯 이렇게 말했다. 운이 좋았다고. 그러나 정말 그럴까? 그게 정말 운 때문일까? 뭔지 모르지만 그 소릴 들으면 개운치를 앓았다. 그 개운치 않은 이유는 훨씬 나중에야. 그러니까 아이를 맡기고 2년여가 지난 뒤에나 스스로 알게 됐다. 그건 내 노력의 결과였다. 내가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인간적이고 정성을 들이는 곳에 맡길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노력의 결과였다.

나는 둘째 아이를 낳고 3개월만에 사회로 복귀했다. 잡지를 창간하는 일이었으니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 나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3개월 동안 여러 가지를 궁리하고 준비를 해나갔다. 우선 첫째 아이가 문제였다. 엄마와의 격리불안을 심각하게 겪었던 첫째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다.

친구들을 수소문해서 서울시내의 보육시설을 조사했다. 친구의 아이를 맡기고 있는 곳들을 우선 알아본 것이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시설, 영재교육, 그런 건 물론 아니었다. 마담이 있는 집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우선하는 조건이 있었다. 바로 선생님들의 살아 있는 기운이었다. 아이들만 보면 기운이 펄펄 살아나는 선생님,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학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는 선생님, 각 계층의 아이들이 골고루 섞여 있어 선민의식을 심어주지 않는 분위기, 그리고 여아와 남아를 평등하게 키울 만한 곳, 바로 그런 곳이었다. 유치원 교육이 원장 개인의 욕심에 의해 휘둘리고, 잘못된 사회 구조와 원장의 비인격적인 대우 때문에 무표정해진 선생님들이 있는 곳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다.

물론 은근히 까다로운 조건이었다. 그러나 나는 절대 완벽한 교육관을 가진 완벽한 태도의 선생님이 있는 곳 같은 건 바라지 않는다. 나는 세상에 완벽한 교육 같은 건 있지도 않으며, 선생님도 인간이라는 점을 받아들인다. 내 자식에게도 불합리하게 성내고 차별하는 게 부모인데 엄



마인 나보다 좀더 이성적이기만 하면 됐다.

마침 한 친구가 소개한 어린이집을 알게 됐다. 동소문동에 위치한 '우리어린이집'이었는데 직장에서도 가까웠다. 나는 그 동네에 가서 인근의 어린이집들을 두루 조사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어린이집을 방문했다. 상가 2층에 있어서 장소는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친구의 소개대로 선생님들만 믿고 아이를 보냈다.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선 지금도 아주 만족한다.

둘째 아이는 더 힘들었다. 아직 3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는 없었다. 나는 아이를 돌보는 틈틈이 동소문동에 가서 내가 살게 될 아파트 단지 안에 광고문을 붙였다. '아이 정성스럽게 봐주실 분 구합니다'라는 문구를 넣은 A4용지 크기의 광고문을 직접 만들어서 27평과 33평, 심지어 40-50평대 아파트 입구에까지 붙였다(그걸 붙이게 되기까지도 쉽지 않았다. 우선 아파트 관리소와 주민회를 찾아다니며 게시물 허가 도장을 받고 비용을 치러야 했는데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았다. 게다가 입구마다 경비아저씨에게 일일이 허가를 받고 3일 동안만 붙일 수 있었다. 3일 뒤에 같은 일을 또 반복해야 했다).

붙인 뒤 얼마 안 되자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나는 전화선을 타고 들려오는 목소리에도 신경을 곤두세웠다.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대략 4-5명의 후보자(?)를 선정했고, 그 분들의 가정을 남편과 함께 직접 방문해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 돌보는 이유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었으면 하고 바랐고, 아주머니의 품성이 넉넉하고 안정되어 있기를 바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아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그 집에 사춘기 남자아이나 집에서 오랜 시간 있어야 하는 남편이 없었으면 하고 바랐다.

또 나는 보모가 우리집에 와서 아이를 돌보는 방법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집안일도 해줄 겸 엄마는 편할지 모르지만 아이에겐 남색스러운 사례를 몇 번 보았기 때문이다. 남의 집에 와서 남의 아이를 혼자 돌본다는 건 그리 인간적인 일은 아니다. 혼자 고립되어서 인내를 요구하는 아이와 씨름한다면 누구라도 긴장이 풀어져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아이가 아주머니 덕에서 그 집 식구의 일원으로 가족들 사이에 끼어서 생활하기를 바랐다. 아주머니는 자신의 집안일도 하고, 동네 사람들도 만나고, 시장도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아이도 그 아주머니의 리듬에 맞춰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참 놀랍게도 40-50평 대에 사는 경제적으로 꽤 부유한 여성들도 아이 돌보기를 아르바이트로 하고 싶어했다. 우린 목소리가 시원시원한 아주머니를 최종 '선정'했다. 그런데 나중에 육아비 문제로 거절당했다. 자기가 아는 친구는 여의사의 아이를 돌보는 데 꽤 많은 보수를 받는다고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했다. 사실 그 분은 경제적으로 전혀 쪼들리는 분이 아니었다. 나는 속으로 '돈 많은 여자들이 무턱대고 탁아비용을 높여놓는 바람에 다른 여자들의 취업을 방해한다'며 흥분했다.

결국 2순위로 접적어놓았던 아주머니에게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 나보다 3살 많아 언니



벨 정도 됐던 그 아주머니는 아이를 맡겨보니 기대한 것보다 훨씬 좋은 분이셨다. 우선 아이를 위해 천기적귀만 사용했고, 과자나 탄산음료 등을 전혀 먹이지 않으셨다.

그 아주머니가 아이를 예뻐해줬다고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물론 모든 아기들은 사랑받을 만한 자질을 타고 태어난다. 어느 사람이건 아주 어린아이 때부터 기르다보면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니 그런 점에 대해선 엄마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 집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딸 둘이 있었는데 학교 갔다온 뒤 틈틈이 회수와 놀아줬고 아주 예뻐했다. 간혹 야근이 있을 때는 어린이집에서 온 첫째아이와 함께 늦도록 아이들을 돌봐주셨다.

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못한다는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나는 주거지를 아이 중심으로 옮겼다. 사실 일하는 부모에게 뜻과 마음이 맞는 보육시설이란 아이를 위해서나 엄마를 위해서나 절대적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관한 한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언제나 그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그리고 아이를 돌봐주는 여성들끼리의 품앗이를 통해 여성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를 느끼게 됐다는 점이 무엇보다 기쁘다.





헨리에타의 첫 겨울

폴 루이스 글·그림 / 정애왕 옮김 / 비룡소 / 6,000원



오윤정 · 회원

가을 맛이 물씬 나는 그림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네 아이들' 잡지에 소개되지 않은 책을 찾으려고 서점에 갔습니다. '아기곰의 겨울 나들이(보림)'가 눈에 띄었는데 몇 년 전에 소개한 듯 해서 이번에는 제목만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람쥐(보림)'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책입니다. 다람쥐의 생태를 그림과 설명

글로 보여주는 지식 그림책인데, 그림이 아주 화려하고 멋져 그림보는 재미도 있고, 다람쥐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헨리에타의 첫 겨울'입니다. 얼마 잃은 헨리에타가 처음 맞이하는 가을입니다. 숲속 동물들은 딱딱한 열매와 물

렁물렁한 열매를 모으며, 헨리에타에게도 겨울 먹을거리를 모아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헨리에타는 숲에서 먹을거리를 모아 공간에 모아두지만, 가을비에 공간은 허물어져 모은 먹을거리를 잃어버립니다. 또 숲에 가서 열매를 모아 오지만, 이번에는 벌레들이 다 먹어버립니다. 이젠 나뭇잎도 다 떨어지고 열매도 얼마 남지 않았고, 헨리에타는 몹시 피곤했어요. 동물 친구들이 도와 열매를 모을 수 있었지만 동물 친구들과 잔치하는 바람에 또 공간은 텅 비어버렸어요. 이젠 눈이 온 숲 속을 하얗게 뒤덮어 버렸으니 더 이상 열매를 찾기는 쉽지 않게 됐네요. 이제 헨리에타는 너무 피곤하고 배가 불러 한숨 자고 열매 부스러기라도 찾아야겠다고 하고 잠이 들었어요. 헨리에타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는 봄이었답니다.

'헨리에타의 첫 겨울'이 주는 매력은 가을의 숲을 보여주는 그림에 있습니다. 나뭇잎들이 노란색, 갈색으로 물들어 가는 숲, 땅에 떨어진 나뭇잎 위로 후두둑 거리며 내리는 비, 가을비가 내리면서 안개가 자욱히 낀 숲, 비바람에 나뭇잎이 떨어져 나뭇가지를 드러낸 나무들, 소리없이 내리는 하얀 눈과 눈이 쌓인 숲, 그리고 나뭇가지에 열매꽃이 핀 봄의 숲을 이 한권의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림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 경관을 참 잘 그리는 화가인가 봅니다. 또 헨리에타도 계절의 변화에 따라 점점 피곤해 보이고 즐거하면서 잠에 빠져들니다. 헨리에타의 몸도 계절을 느끼나 봅니다.

헨리에타의 살림살이를 자세히 보면 웃음이 납니다. 풀라 강통을 구겨 만든 의자, 주위

온 동전과 십자가는 멋진 장식품이 되고, 부지깥이는 큰 바늘과 못입니다. 헨리에타가 잠이 든 침대는 생선 강통입니다. 헨리에타가 벌레들을 쫓던 빗자루는 어떤 물건이었을까요? 물론 사람이 버린 물건 중 하나예요. 정답은 그림책 속에 있습니다.

헨리에타는 아직 어리지만 여러 동물들의 도움과 자신의 노력으로 겨울을 잘 나고, 봄을 맞이 했습니다. 이야기의 진행이 잔잔해서 자칫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겨울을 나는 동물들이나 가을에 대한 글의 표현, 그리고 적절한 의성어, 의태어의 사용이 글을 재미나게 합니다. 도시의 아이들은 점점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뒷산에 나들이 가서 이 책을 읽어 주면 어떨까요? 이 책을 권하는 이유는 자연의 맛, 가을의 맛을 아이들이 느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참, 다람쥐는 겨울잠을 자지만 이 그림에 등장하는 회색빛의 청설모는 겨울잠을 자지 않는대요. 이번 그림책을 고르면서 확실히 안 사실은 다람쥐의 겨울잠은 뱀이나, 개구리와 다르다는군요. 개구리나 뱀은 많이 먹고 겨울 내내 꿈쩍 않고 자지만, 다람쥐는 잡자리 곁에 먹이를 모아 놓고 때때로 일어나 먹이를 먹고 또 잔다는군요. 다 아는 사실이라구요? 속스럽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하는구나 하고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헨리에타는 서양쥐인데, 서양쥐 가운데는 겨울잠을 자는 쥐도 있답니다. 동물사전과 출판사에 문의해 봤지만 정확한 이름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만들어낸 동물은 아니라고 합니다.

달순이와의 전쟁

주예민

서울, 씹씹이어린이집 교사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이 늦가을을 느끼게 한다.

아직 설익은 낙엽들이 마지못해 붙어 있는 듯 그렇게 가을은 선뜻 우리곁으로 다가왔다.

제법 발발할 뻔하는 낙엽 밟는 정취를 느껴보기도 전에 어린이집은 정신이 속 빠진지 며칠째이다. 환절기때마다 찾아오는 감기로 아이들과 이모들은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 녀석들로부터 찾아오기 시작한 감기는 어린이집을 병실로 만들었다. 열을 동반한 감기는 아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덕분에 이모들도 함께 고생하는 셈이다.

아이들 중에서도 달순이는 며칠째 감기와 심한 열병으로 물 한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있다. 오래된 감기의 방치로 심한 열감기로 발전했고 급기야는 잇몸 염증과 헛바늘이 돌아 아이가 아무것도 먹지 못할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달순이는 이모들 등에서 업혀 지내려만 한다. 이것 저것 먹일려고 음식을 준비하지만 먹을 것만 보면 신경질과 짜증을 부린다. 이렇게 며칠을 지내다 보니 아이가 안스럽기도 하지만 도무지 내가 힘들어 견딜 수가 없었다. 이제 24개월이 지난 달순이와의 하루는 그야말로 전쟁을 방불케 한다. 아프기 전에도 늘상 나와 싸우는 일로 시작해 싸우는 걸로 끝나는 녀석이다. 때론 이성을 잃고 달순이를 대하다 보면 교사라는 사실을 잊기 일쑤가 되어 버린다. 정말 대단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아이다. 나를 이성마비의 상태까지 만드니 말이다. 이제 막 돌 지난 아이처럼 작은 체구에 고집불통의 여자 아이 박달순!!

씹씹이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누구나 첫눈에 들어오는 달순이를 잊지 못해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름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외모에다가 씹씹이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일으키는 말썽만으로도 달순이를 기억하기에 충분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달순이만이 품기는 독특한 향기가 향수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교사로서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자면 이렇다. 달순이가 있으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다. 그러다 하루 빠지는 날은 할 일도 없는 것 같고 평화가 찾아오는 듯 여유가 생

긴다. 그래서 빠진 첫날은 좋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렇게 이틀만 지나면 달순이가 그리워 진다는 것이다. 빠져린 반성과 함께 말이다. 그러다 나타나면 모든 그리움은 일상에 묻혀지지만 말이다. 이렇게 내게 있어 달순이는 혼란 그 자체이다.

달순이는 오늘 꿀을 반 컵을 마셨다.

하루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허기와 갈증이 났는지 꿀물을 타주니 단숨에 마시고 난 뒤 컵을 내동댕이 쳤다. 입안을 아프게 했으며 고래고래 소리지르면서 물었다. 오라해도 오지않고 멀쩡이 떨어져 앉아 원망과 분노 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말이다. 다른 이모에게 안겨 자기를 위로해 달라는 듯 매달려 있다. 안스럽다. 아이가 너무 아프니까 말썽 피우면 때가 오리라 그리워진다. 부잡스럽고 사고당어리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맥없이 반쪽이 되어간 녀석의 모습이 오만가지 생각을 갖게 한다. 빨리 나아서 씹씹이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극성을 피웠으면 좋겠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역시 달순이는 내게 있어 사고의 혼란을 갖게 하는 아이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달순이와 나는 현재 휴전중이다.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관계이지만 극도로 허약해져 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동정심과 이해가 생기듯 달순이와 나는 서로에게 참으로 많이 의지하고 있다. 달순이와 나와 관계 속에서 처음으로 말이다. 달순이는 내게 온 몸을 던져 기대어 있고, 나는 달순이에게 혼란을 위로 한 채 애정을 확인 받고 있는 것이다. 어쩔 난 지금 행복한 교사라고 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한편 두려움도 있다. 달순이와

나의 원만한 현재의 관계가 달순이의 회복과 함께 치뤄질 전쟁이 원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전에 내게 남은 숙제가 있겠지. 이 전쟁이 휴전이 되면 평화가 되던 달순이보다 내 역할이 더 크다는 것- 이 숙제를 달순이가 회복하기전에 먼저 풀어야할 텐데...

아이가 심하게 아프고 나면 큰다던데 우리 달순이가 아프고 나서 이러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이모! 날 그렇게 모르세요?"

사람이 만나고 싶습니다

사람이 만나고 싶습니다

누구든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고

눈길이 통하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과

잠시말이라도 같이 있고 싶습니다

살아갈이 괴로울 때는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생깁니다

살아갈이 지루할 때면

보고픈 사람이 있으면 볼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데

모두 다 바라보면

멋쩍은 모습으로 떠나가고

때론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외면합니다

사람이 만나고 싶습니다

친구라고 불러도 좋고

사랑하는 이라고 불러도 좋을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 봉해원 -



키드 인사이트(Kid Insights)

김지희 · 서울 남부,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 관리자

우리의 집과 우리 이야기, 우리 먹을거리 등등...

옛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실 땐 어디를 찾으실까요? 박물관이라고요?

여기 인터넷의 바다에도 아이들을 위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삼성문화재단과 삼성 SDS가 함께 만드는 코리아 인사이트의 한 부분인 키드 인사이트에는 우리나라의 옛 집, 옛날 이야기, 옷, 먹을거리, 기념일 등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예쁘게 꾸며놓았습니다.

각 주제별로 흥미로운 사진들과 가벼운 설명이 들어 있어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쉽고, 아이들 스스로 클릭하여 보기도 쉽겠는 걸요.

어른이 되버린 제 눈엔 아무래도 정보량이 적어 무늬(?)만 화려하다고 혹평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 않니까? 아이들의 집중력과 호기심에 있어서 아주 적절히 고려된 사이트일지도...

아참, 이 사이트의 내용을 게임으로 알아보는 오락실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안타까운건 쇼크웨이브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야 한다는 것이지만요. 원하시면 오락실에 들어가자마자 다운로드하라고 메시지가 나올테니 걱정 말고 들어가보세요.

그럼, 이제 출발! 이번엔 아이들과 함께 출발하는 겁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korea.insights.co.kr/forkid/korean/index.html

• • • 목 소 리

24시간, 디딤을 필요로 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며...

김정자 · 대구, 디딤어린이집

이야기 하나.

15개월부터 디딤에서 24시간 보육을 했던 예희가 이제는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나와 마주 앉아 친구들, 바빴던 하루의 일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6살이 되었다.

95년, 집 나간 엄마와, 자신을 디딤에 맡긴 아빠에 대한 그리움으로 한 달 이상을 밤잠을 설치며 울고 보채던 예희. 좀더 커서는 친구들이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면 늘 나에게 "예희 아빠는 언제 와요?"라며 우울해 하던 예희의 표정, 훌쩍 커버린 지금은 돌아가는 친구들에게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돼! 밥 많이 먹고~"라며 농담(?)까지 하는 예희, 친구들의 앞에서 "정자 쌤이 예희 엄마다. 그래서 나는 디딤에서 잔다!"라고 힘주어 얘기하던 예희, 예희의 모든 행동과 말 그리고 표정들이 나에게 이제는 가슴 아픈 그러나 소중한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다.

이젠 아빠랑 함께 잠만이라도 잘 수 있는 예희를 보며, 디딤을 떠나는 아쉬움과 나의 허전한 보다는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예희에게 전하고 싶다.

이야기 둘.

IMF 이후, 디딤어린이집의 가장 큰 변화는 야간 보육과 24시간 보육 아이들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과 보육유형이 더욱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출퇴근하던 엄마들이 2교대 및 3교대로 근무 조건이 거의 강제(?)로 바뀌면서 아이들 또한 2,3주 간격으로 종일반과 야간보육, 24시간 보육을 하고 있다. 또한 임시직과 시간제, 서비스직으로의 취업이 늘면서 보육유형 또한 근무시간 만큼이나 다양해졌다.

새벽에 가까운 아침 6시에 디딤에 오는 하정 이. 아침부터 밤10시까지 있는 용범, 용빈이와 민지, 오후 4시에 와서 다음날 오전에 가는 동민이. 2,3주 간격으로 보육시간이 바뀌는 석진 이와 현진이. 24시간 디딤에서 생활하는 현철 이와 지연이 등등...

최소한의 규칙적인 생활, 가정에서 함께 할 시간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디딤의 대다수 아이들을 보며 무척 속상한 요즘이다.

• • • 목 소 리

이야기 셋.

디딤에서 나와 함께 생활했던 24시간 보육 아동들 중에 가장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아이가 바로 용희일 것이다.

집 나간 엄마로 인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 다시 아빠에게 버림받은 용희. 1년간이나 연락없는 아빠로 인해 결국 대성원으로 보내진 용희에게 여전히 희망일 수 밖에 없는 아빠는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낯선 환경에서 나에게 물어 매달려 디딤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디딤에서 기다리면 아빠가 꼭 돌아올거라던 용희. 그리고 용희는 어디 갔느냐며 계속 나를 보채던 디딤 아이들...

아주 가끔, 용희처럼 이렇게 어린이집에 버려지는 아이들을 보며 그리고 그 아이들을 결국 아동보호소로 보내는 나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운 어른의 모습을 발견하고 한동안 디딤의 많은 아이들을 마주 대하기 힘들었던 그때...

그때의 기억이 용희와 아이들 그리고 나에게 여전히 치유될 수 없는 큰 상처로 남아있다.

이야기 넷.

성빈이가 디딤에 온 지 두달 만에 떠났다. 좋은 모습이 아닌 슬픈 모습으로...

지방으로 트럭을 몰고 장사나가는 아빠 품에 안겨 디딤에 온 성빈이는 24개월에도 불구하고 덩치가 작고 엄마라는 말밖에 할 줄 모르는 기저귀와 젖병을 아직 떼지 못한 아이였다.

거의 2주일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고 보채던 성빈이. 친구들과 뛰어 놀기도 하더니...

후석 연휴를 제외하고는 디딤을 떠난 적이 없던 성빈이가 어느날 갑자기 떠났다.

집 나간 엄마가 디딤에 온 날, 이혼과 함께 성빈이를 자신이 키우겠다는 엄마와 이혼은 절대 못한다는 아빠의 과성과 싸움 속에서 성빈이는 영문도 모른 채 엄마와 아빠의 양말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갔다. 유난히 성장 발달이 늦었던 성빈이 그리고 유난히 병치레가 잦았던 허약한 성빈이에 대한 의문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면서,

멍한 성빈이의 눈동자가 자주 어른거렸다.

이야기 다섯.

24개월 지연이와 엄마 등에 업혀 디딤에 들어선 5개월 현철이. 디딤에서 24시간 함께 생활한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

교통사고로 몇번의 수술을 앞두고 계셨던 아빠, 그리고 새벽엔 우유배달, 낮에는 주유소 아르바이트, 또 다시 저녁부터 식당일로 살림을 꾸려 나가시던 엄마...

그렇게 어느 겨울, 지연이 현철이 가족은 디딤을 찾아 왔다.

이제 "배~뽀뽀"지연이는 5살의 디딤의 언니아가 되었고, 현철이는 혼자서 용기와 쉬를 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기를 좋아하는, 그리고 한 끼 식사로 밥 세 그릇을 꼭 먹어야 하는 24개월로 병아리반의 오빠아가 되었다.

월세 지하방에서 임대 아파트로 이사도 하고 수술 후 아빠는 광고 영업으로, 엄마는 낮에는 전화교환원 재취업 훈련, 새벽과 밤에 일하신다. 가슴 깊이 희망을 간직하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리고 스승의 날에 디딤 선생님들께 감사한다는 2장의 편지와 예쁜 손수건을 보내주시던 엄마, 아빠의 마음을 생각하며 디딤과 나의 일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 본다.

함께 어우러지는 송년잔치를 꿈꾸며...

편집부

새해가 밝았다고 신년 계획 세우고 새로운 다짐하고 그런 게 얼마 안되는 듯인데 어느새 12월이 훌쩍 다가왔다.

12월이 오면 모두들 마음이 바빠지고 여기저기 송년회 약속으로 달력이 꽉 채워져 모두들 한 해를 마감하느라 분주하다. 한편으로는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의 약속, 다가오는 새해를 은근히 기다리는 등 약간의 설렘으로 보내는 12월.

그러나 보육교사들에게는 12월이 그리 반갑지 않을게다. 매년 연말이면 치뤄야 할 흥역, 송년잔치, 또는 재롱잔치가 떠올라니 앞에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그 행사를 치루지 않으면 절대로 새해가 오지 않길라도 하는 듯이 거의 모든 보육시설에서는 송년 행사 준비로 눈코 뜰 새가 없다.

교사는 교사대로 아이들 공연에 필요한 재료 준비와 아이들의 공연 연습 지도, 어린이집의 환경 구성, 묵은 먼지 청소 등으로 밤 10시 되근이면 다행이다 싶게 하루가 팍팍 돌아간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잔치가 있기 한달 전

부터 계속되는 연습으로 처음에 아무리 재미있고 즐거웠던 활동이라도 계속되는 물에 박힌 반죽에 어느새 로보트가 된 듯이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선생님의 사인이 떨어지면 대사를 줄줄 외우는게 송년잔치까지 대략 한달간의 어린이집 풍경이다.

송년잔치 당일, 아이들이 어울리지 않게 입술 등에 화장을 하고 무대에 올라 공연을 하면 부모들은 자기 아이를 보며 '우리 아이가 벌써 이렇게 자랐구나!' 하며 뿌듯해 하기도 하지만 아이가 실수라도 하면 속상해서 집에 돌아가서는 아이를 닥달하기도 하고 바보같이 그런 것도 못한다고 행운련(?)을 시키기도 한다. 어쨌든 반별로 아이들의 재롱떨기(?)가 비디오에 다 담겨지면 기념 사진을 찍고 그러면 잔치가 끝난다.

한달전부터 열심히 준비한 잔치 치고는 남은 감정이 참 허하다.

언제부터 이런 송년잔치가 진행됐는지는 몰라도 어느샌가 교사도, 부모도 이런 보여주고 보는 일방적인 문화에 익숙해 있는 듯하다. 분명 잔치는 잔치인데 어느 누구 하나 기뻐하기 보다는 그냥 빨리 끝나면 좋은 하나의 행사

이상의 의미가 없어보인다. 아쉽다. 부모와 아이들, 그리고 교사를 등 그야말로 어린이집을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기회가 그리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아예 송년잔치나 재롱잔치를 없애기도 그렇고...(이 얘기는 다른 교사들과도 한 번 얘기해 보고 싶다. 정말 송년잔치가 필요한지, 그 나름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등)

그러면 송년잔치를 정말 가족잔치 다운 잔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이 글을 쓰는 나로서도 딱히 이것이 송년 잔치의 정답이다 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별로 없다. 시설마다 각각 형편이 다르고 규모가 다르다 보니 어떤 얘기들은 그림의 떡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잔치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부모들을 단지 관객으로 보지 말고 가능한 선에서 함께 잔치를 만드는 일원으로(예를 들어 부모들이 준비하는 인형극 공연 등), 아이들과도 따로 이 행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기 보다는 1년동안 진행된 프로그램 중 아이들과 즐겁게 진행했던 내용을 부모들과 함께 한다든지 등등 준비부터 행사 당일까지 함께 어우러진다는 마음으로 출발하면 훨씬 교사들에게 오는 부담과 피곤함이 덜하지 않을까? 아니 피곤하더라도 뭔가 남은 것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시설에 있는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겠지만.

아름든 지금도 보육현장에서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선생님들께 내 얘기가 또 하나의 부담으로 다가간진 않는지, 혹여 실없는 소리로 들리지는 않을런지 미안하기도하고 걱정

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미래의 주인들을 키우는 보육교사라면 자기도 모르게 길들여진 잘못된 문화는 자기 스스로에서부터 깨트려 나가야한다는 생각을 잃지 말았음하며 객적인 소리를 마친다.

튼튼하게 자라는 아이들 - 체육활동

김영명 · 인천, 종달새어린이집 원장

베를린의 아이들은 킨더가르텐에서 많은 시간을 실외 놀이터나 실내의 신체활동 공간에서 놀이를 하면서 보낸다. 점심이나 간식을 먹는 시간을 제외한 활동 시간의 1/2 내지 2/3를 신체활동을 하면서 보낼 정도다. 하루 중에 교사가 준비하는 활동은 많아야 한 두 가지 정도이며, 아이들은 실내에서 자유활동을 하거나 놀이터에서 충분히 논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유스럽게 노는 시간 이외에 투르넨이라고 불리는 체육활동 시간이 따로 있는 킨더가르텐이 있는가 하면, 킨더라텐의 경우에는 체육관이나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다.

킨더라텐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전에 근처에 있는 체육관에 가서 체육활동을 한다. 10분 정도 걸어서 가는데 한가로운 길을 걸어서 가기 때문에 자동차에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가는 중에 두군데 차가 나오는 골목이나 문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모두 멈추어서 일렬로 서 있다가 선생님이 호명하는 한 아이가 '오케이'라고 외치면 함께 출발한다. 골목이나 문에서 차가 나오는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어김없이 그 곳에서는 모두 멈추어 선다. 찾길을 건널 때면 선생님이 차도 한 가운데 서서 차가 오는지를 확인한 후에 오케이라고 외치면 건너는데 안전에 대해서 매우 철저해서 어기

는 아이는 꼭 꾸지람을 들었다.

체육관은 꽤 큰 규모이며,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등이 갖추어져 있는데 월요일 오전에는 근처에 있는 10여개의 킨더라텐의 어린이들이 이용한다. 킨더라텐은 놀이방 규모이며, 시설이 넓지 않으므로 대개는 자체에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수요일에는 1-2세 아이들이 어머니와 함께 와서 체육관을 이용하며 다른 요일에는 중·고등학생이나 성인들이 이용한다. 킨더가르텐 아이들은 자체 내에 놀이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므로 체육관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 체육관을 이용하는 데는 어린이 한 명당 1.5마르크(850원 가량)가 든다고 하는데 작년까지는 무료였으나 최근 들어 복지예산이 삭감되면서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한다. 체육관에는 체육시설을 배치하고 정리해주는 일을 하는 직원이 있어서 가는 날에 따라 기구의 종류나 배치가 조금씩 달라진다.

체육관에 들어서면 아이들은 우선 탈의실에 가서 옷을 벗고 선생님의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넓은 공간으로 들어가서 마음대로 활동을 한다. 아이들은 특별히 체육복이랄 것도 없는 반바지나 티셔츠 차림이 되기도 하고 팬티에 런닝셔츠를 입은 아이도 있다. 신발도 가지가

지어서 맨발에서 실내에서 신는 신발, 운동화까지 가지가지이다. 같은 체육복이나 운동화를 신지 않은 채 가지가지의 복장으로 마음껏 신나게 뛰면서 운동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팬티나 맨발의 아이도 다른 아이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다. 체육관에 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단체로 체육복을 입고, 교사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체육활동을 할 거라고 나름대로 상상을 했었는데 제각각의 복장으로 교사의 지시도 전혀 없는 채 활동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심 적지 않게 놀랐다.

체육관에는 매트와 뽕볼 또는 평균대와 매트가 연결되어 있으며, 뽕볼과 철봉이 이어져 있기도 한다. 공이나 훌라우프가 여러 개 있으며, 아이들이 기어서 통과할 수 있는 원통도

있다. 일단 넓은 체육공간에 들어서면 아이들은 제각각 시설을 이용하기도 하고 공이나 훌라우프를 가지고 논다. 뛰어다니고 기어다니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 아이들은 기구를 자유롭게 활용해서 노는데 훌라우프를 가지고 삼각형의 입체 공간을 만들어서 놀기도 하고, 여러 명의 아이가 훌라우프에 매달려 있으면 한 아이가 끌고 다니기도 한다. 또한 연령에 맞게 활동 방식도 다양해지는데 2살 반 정도의 아이들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며

간단한 활동을 하고, 더 큰 아이들의 경우에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매트에서 재주를 넘고 철봉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매달리기를 시도한다.

가기 전에 체육관에 가면 아이들이 적회를 꺼리 논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다른 킨더라텐 아이들도 많이 있으므로 선생님의 어떠한 지시가 있으려니 생각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 아람로 자기 마음대로 뛰어 논다. 선생님들은 뽕볼이나 매트, 철봉 같은 데서 아이들의 활동

을 도와주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답소를 즐기기도 한다. 킨더라텐의 교사들에게 있어 체육관은 다른 킨더라텐의 교사를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한 것이다. 어찌다가 아이들을 지휘해서 공놀이를 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아

이들이 활동을 선택하고 선생님들도 내키는 대로 어린아이를 도와주거나 한 가지 운동기구에서 그 활동을 하는 아이들을 도와준다. 아이들도 자유롭게 선생님들도 자유롭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체육관에 갔다. 전과는 약간 다르게 운동기구가 배치되어 있었고, 인원이 더 적었다. 스테판은 가장 어리고 킨더라텐에 온 지 한 달된 아너크를 데리고 앉아서 교사들과 얘기를 하고 있으며, 아너크는 큰 아이들이 노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스테판이 이야기를 멈추고 아너크를 데리고 공



놀이를 잠깐 하였는데, 아니크는 흥미있어 했다. 스테판은 아니크와 공놀이를 하기를 원하는 마레이크에게 아니크를 맡기고 다시 자리에 와서 앉았고, 마레이크가 아니크와 계속 공놀이를 하였다. 킨더라덴의 5-6세 된 아이들은 어린 아니크를 골잘 데리고 놀거나 돌본다. 혼합연령반의 장점이 나타나는 듯하다. 스테판은 어린 아니크에게 많은 활동을 시키지 않는다. 아니크는 자기보다 큰 아이들이 노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가 스테판과 함께 잠깐 동안 한 두가지 활동을 한다. 이 곳 사회가 지나친 경쟁이 존재하지 않아서인지 교사나 부모가 아이들을 대하는 것에 여유가 있다. 그런 여유가 부러웠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많은 활동을 권하지 않으며, 아이들은 그저 다른 아이나, 자기보다 더 큰 아이가 하는 것을 보면서, 또 자신의 욕구에 따라 활동한다. 교사들이 프로그램 준비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거나 부산스러워 보이지 않았는데 이 또한 자연스러워 보였다. 아이들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자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유아기에는 이런 모습이 정상적인 것이 아닐까? 아무리 아이들이 잠재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노력이 상당히 가해져야만 발현되는 것이라면 어쨌든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아이들의 능력이 충분한 시기에 성인의 노력과 자원이 투하된다면 아이나 부모, 교육자 모두 편안하면서 즐거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느슨하고 한가하게 지내던 아이들이 청소년이나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은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한다. 산업현장에서 일하

는 독일의 직장인들은 막강한 독일 경제력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대학에서 학문에 종사하는 이들 또한 지독하리만치 연구나 학업에 집중한다.

오늘도 아이들은 체육관에서 신나게 그리고 활동적으로 뛰어논다. 교사인 마티나는 6년째 이렇게 체육관을 찾고 있다고 말한다. 늘 비슷 비슷한 활동일텐데 아이들은 언제나 신이 난다. 그것은 아마도 이러한 활동이 아이들에게 가장 잘 맞기 때문이리라.

킨더라덴에서는 체육관 대신에 근처에 있는 수영장에 가기도 하는데 이 때는 남자 교사인 스테판이 5-6명의 아이들을 인솔해서 다녀온다. 수영장의 입장료는 아이들의 경우 2마르크 15페니(약 1,200원)이며, 2시간 정도 이용한다. 수영장은 아주 깨끗하고 쾌적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쓰는 시설이 너무나 깨끗한 데 놀랐다. 걸어서 가도 되는 거리에 이런 수영장이 있다는 것이 무척 부러운 조건이라고 생각되었다. 스테판은 수영장에 가서 아이들과 열심히 놀아주고 아이들도 즐겁게 물놀이를 한다. 수영장에는 어른들도 다수 있었으나 많은 유아들이 왔다 갔고 초등학교 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도 왔다. 스테판은 그곳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스스로없이 노는데 수영장 가는 것은 스테판의 몫인 듯 했다. 이번에는 큰 아이들을 데리고 왔고, 다음 번에는 어린애들을 데리고 갔다. 다른 킨더가르텐의 이야기를 들으니 수영을 아이들의 필수적인 운동으로 생각하여 여름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수영장에 간다고 한다.

베를린공대부설 킨더가르텐이나 시립 킨더

가르텐에서는 투르넨이라고 불리우는 체조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 한다. 교사 중에서 투르넨을 담당하는 교사가 있으며, 그룹(반을 그룹이라고 함)별로 일주일에 1시간씩 진행하거나 몇 개의 그룹을 3세, 4세, 5세로 나누어 연령별로 그룹을 편성하여 진행하기도 한다. 한 그룹은 10명에서 13명 정도의 아이들로 구성된다. 투르넨을 담당하는 교사는 연령에 따라 아이들의 운동 능력의 발달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서 비슷비슷한 활동을 연령별로 조금씩 다르게 구성한다. 투르넨 활동은 아주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진행되기도 하지만 참가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체육활동을 다양한 노래나 음악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것도 아이들을 즐겁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되었다. 시립 킨더가르텐에서 진행되는 투르넨 활동을 자세히 볼 기회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2세 6개월 - 3세 연령의 투르넨 활동"

- 가. 녹음기를 통해 음악이 나오면 아이들과 교사는 박수를 치며 원을 돈다. 빠른 음악이 나오면 빨리 돌고 늦어지면 천천히 돌며 반대 방향으로도 돈다. 아이들은 매우 즐거워하며 교사를 따라 도는데 넘어지면서도 즐거운 표정이다.
- 나. 박수를 치며 뒤로도 걷는다. 몇차례 반복하고 나서 노래를 불러주면 아이들끼리 먼저 했던 활동을 한다.
- 다. 그 다음에는 음악을 틀면 뛰고 멈추면 앉기를 한다.
- 르. 노래를 바꾸어 손과 팔로 기차 바퀴를 굴

리는 모양을 하며 빙빙 돈다.

- 모. 음악에 맞추어서 매트에서 푹푹 푹푹 뛰기를 한다.
- 비. 아이들에게 콩주머니를 한 개씩 나누어 준다. 콩주머니를 위로 던지며 놀다가 교사의 지시에 의해 콩주머니를 등 위에 올려놓고 걷는다. 콩주머니를 발등 위에 올려놓는다.
- 오. 매트와 평균대 등을 활동실 가장자리를 따라 늘어놓고 아이들이 하나 하나를 거치면서 활동한다. 아이들은 평균대 위를 걸고 매트에서는 재주넘기 활동을 하면서 빙 돈다. 어려워 하는 활동인 경우에는 교사가 아이를 도와준다.
- 즈. 쥐꼬리를 엉덩이에 끼워준 후 쥐꼬리 잡기 놀이를 하고 끝난다. 쥐꼬리 잡기 놀이는 꼬리를 단 아이들은 쥐가 되고 꼬리를 달지 않은 한 명의 아이가 고양이 되어 쥐의 꼬리를 잡는 게임이다. 꼬리를 잡힌 아이는 고양이가 되어 쥐꼬리를 함께 잡는다.

"4-5세반의 투르넨 활동"

- 가. 활동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면서 아이들은 매트에서 재주넘기를 하면서 논다.
- 나. 음악을 틀어놓으면 아이들끼리 음악에 맞추어 댄스. 교사는 말로 지시만 내리는데 앞으로 뛰었다 뒤로 돌아서 뛰기를 반복한다. 원을 돌면서 아이들은 신나게 활동한다.
- 다. 매트에 올라가서 음악을 들으면서 푹푹 푹푹 댄스.

ㄹ. 음악에 맞추어 원을 돌면서 뛰다가 교사가 지시하는 소리에 따라 아이들은 잠시동안 뛰기를 멈추고 양팔과 한 쪽 다리를 들고 허리를 굽힌 채 서있는 동작을 취한다. 한 쪽 팔과 한 쪽 다리만 땅에 대고 서있는 동작을 하는 등 교사가 취하는 다양한 동작을 아이들이 따라 한다.

ㅁ. 여아 네명만 매트에서 폴짝 폴짝 뛰고 남자는 주위를 돌다가 교사가 취하는 동작을 따라 하고 그 반대로도 한다.

ㅂ. 공주머리를 주고 던지면서 놀게 한다. 아이들은 위로 던지고 받는 동작을 한다.

ㅅ. 한 손에 쥐고 있는 공주머리를 다리 밑으로 넣어 다른 손에 주고 받는 활동을 하는데 잘 안되는 아이를 교사가 도와준다.

ㅇ. 공주머리를 발 사이에 넣고 던지기를 하고,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던지기도 한다. 공주머리를 던지고 자기 것을 찾아오는 것도 반복해서 진행한다. 아이들이라 던지는 동작이 서툰 아이도 있는데 처음에는 잘 못던지던

아이도 곧잘 하게 된다.

ㅈ. 발을 빙글면서 매트 넘기, 평준대 걷기, 매달리기, 고리 통과하기 등을 한다.

ㅊ. 쥐꼬리 잡기를 한다.



위에서 자세히 소개한 것처럼 투르넨 활동은 연령이 달라도 기본 활동은 같다. 그러나 공주머리를 가지고 하는 활동에서와 같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활동 내용이 좀 더 복잡하고 세밀해 진다. 방과후 보육인 호르트의 아동들을 데리고 할 때는 공을 발 사이에 끼우고 던져서 받는 것과 같이 어려운 동작을 하기도 한다. 투르넨을 할 때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가하여 즐겁게 활동을 한다. 베를린의 킨더가르텐에서는 활동에 모든 아이들이 반드시 참가해야 하는 분위기가 일반적이지 않은데도 투르넨 시간에 집중을 잘하고 전체가 빠짐없이 참가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활동의 내용이 얼마만큼 아이들의 흥미를 끄는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이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중하지 않을 때는 활동에 참가하도록 독려하기 이전에 교사가 진행하고 있는 활동이 얼마만큼 아이들에게 흥미롭게 다가가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곳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굉장히 활발하게 다소 극성스러운 정도로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무척이나 건강해 보인다는 것이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나 조금 큰 아이들이 철봉이나 램틀에서 보

여주는 운동 능력을 보면서 아이들의 기초 체력이 꽤나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들의 건축물이 무척이나 튼튼해서 일백년을 가며 생활용품이 대개 튼튼한 할이나 나무로 된 것이 많아 매우 견고한 것과 같이 그들의 아이들도 유아기에 튼튼하게 기초체력을 다질 수 있도록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 부럽게 생각되었다. 집을 기초부터 다져 튼튼하게 짓듯이 아이들의 교육 또한 빠른 눈에 보이는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부터 다지면서 내실을 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유학생 친구의 말을 빌리면 한국 학생들이 지적인 면에서는 독일 학생들에 비해 뛰지 않지만 체력에서는 딸릴 수 밖에는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식생활의 요인만이 아니라 웬만한 거리는 걸어다니고, 자전거를 잘 이용하며 체육시설이나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린시절이 있음으로써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전거를 타는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베를린에서는 지하철을 탈 때 자전거를 메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여자들을 자주 볼 수 있으며, 젊은이나 중년의 남녀가 자전거를 즐겨 타는 모습,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참고로 구 서독지역에는 약 5만 개의 클럽 및 학교 경기장, 3만 개의 체육관 및 체조장과 7천 7백개의 실내외 수영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체육시설을 자유로이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이관우, 1997). 놀이터나 체육공간이 없어서 하루 종일 실내에서만 보내야 하는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많은 영유아들을 생각하면

갑갑한 마음이 든다. 하지만 개별 보육시설에서 체육공간을 갖추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라면 지역에 체육시설이 세워져서 여러 보육시설의 아이들이 이곳에서와 같이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은 구 단위나 복지관 등에서 체육관을 설치하는 곳이 많은데 체육시설이나 놀이터가 없는 인근 놀이방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세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

추천하는 이: 왕미에 · 평생회원

한동안은 '책 같은 책'을 거의 보지 못하고 살았다. 간신히 마음의 여유를 얻어 동네 제법 큰 서점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고른 책중의 하나, [세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

여기저기서 격한의 홍보와 광고를 하는 탓에 어쩌면 우리네 아이들 독자들 중 많은 이들이 이미 이 책을 읽었을 지도 모르겠다. 내 생각을 먼저 말하면 오랜만에 '책 같은 책'을 만났다.

책을 쓴 홍세화씨는 익히 알려진 대로 남민전 사건으로 알뜰결에 프랑스의 객이 되어버렸고, 일전에 출판된 그의 책 [나는 바리의 택시운전사]는 굉장한 베스트 셀러로 기억된다. 아쉽게도 나는 아직 읽지 못했다. 게으른 탓이다.

그 홍세화씨의 두 번째 책 [세느강은...]은 책 속표지에도 적혀있듯이 '문화비평 에세이'이다. 글쓰기가 몰랐었던, 그리고 지금 몰랐고 있는 한국과 프랑스라는 두 사회의 모습들을 소개하고 견제하고 있는데, 내 보기엔 프랑스 사회에 대한 칭찬으로 책은 축축히 젖어있다. 글쓰이는 그 이유를 "두 아이가 똑같이 행동하였을 때 남의 자식은 칭찬하라고 했고 제 자식은 아단치라고 했다. 하물며 제 자식이 뛰어들어 있음이 분명히 보이는 데에야. 그리하여, 비판과 반론을 주고받으며 한바탕 토론을 벌여 보자."고 분명히 밝히고 아울러 우리에게 이 책을 읽은 후에 토론까지 벌일 것을 숙제로 떠넘긴다.

문화비평 에세이라는 내용의 틀은 언제 읽어도 부담이 없어서 일단 좋다. 영화비평이나 문학비평보다 훨씬 쉽고 또 알고 있던 것을 더 깊게, 때론 다른 시각으로 다루고 있어서 그 재미가 삼삼하다. 그만큼 글쓰기가 얼마나 깊이있는 사고와 안목을 지녔는가 중요하기도 하다. 내가 책을 읽는 내내 감탄할 수밖에 없던 것은 바로 글

쓰이의 통찰력이다. 사실 나는 글을 쓴 홍세화씨가 언론사 파리 특파원이었다고 알고 있었다. 그래서 기자출신은 역시 다르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다시 책 표지 안쪽을 보니 무역회사 해외근무 중에 남민전 사건으로 발이 묶인 거였다. 다시 한번 그의 통찰력에 감탄을 하는 순간이다.

바리에는 '유형'이 없다던가. 아주 오래 전 그 말을 들었을 땐 그저 바리 사람들은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기분 나빠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했다. 맞는 말이지만 하지만 난 바리, 아니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성의 의미를 착각하고 있었나 보다. '프랑스'라고 하면 그네들의 심미안(審美眼)만 부럽던 내게는, 촌스러워 보이는 옷들을 걸친 이들의 활보가 알량한 '자존심'으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던 거다.

내가 속한 사회를 다시 볼 수 있고 또 다른 사회의 모습도 들여다 볼 수 있는 경험은 언제나 즐겁다. 굳어있던 내 머릿속의 편견들이 여지없이 깨지고 끝내 사라져가는 소리가 신난다.

어쩌다 책을 사보려고 해도 막상 손이 가는 게 없어. 요즘은 신문에서 소개된 책들 중에서 눈길 가는 책 제목과 출판사, 지은이 정도를 메모해둔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책을 쓴 홍세화씨가 일을 낸다고 한다. 맘이 맞는 이들과 함께 [아웃사이더]라는 진보성향의 격월간지를 낸다는 데 나는 벌써부터 이들의 소란이 기다려진다. 지갑이 알파해서 정기구독은 못하더라도 가끔 한 번쯤은 사서 볼 수 있는 맘을 만한 책이 또 하나 내 목록에 더해졌기 때문이다.

홍세화 / 인겨려신문사 / 정가 7,500원



♪그대 발길이 머무는 곳에~

아래에 소개된 카페는 생혁문화 감지 데이오프에 속한 곳입니다.
인터넷주소는 <http://www.dayoff.co.kr>입니다.

♣ 신촌에서 만나는 문화공간 - 민들레 영도

연대앞 북수리 다방과 창천교회 사잇길로 150M 정도 가다보면 왼편에 아주 소담하고 예쁜 집을 하나 볼 수 있다. 바로 민들레 영도. 신촌을 찾는 사람들에게 문화 공간을 제공하면서 사람받고 있는 곳이다. 커피값 대신 문화비 3,000원만 내시면 3시간 동안 커피를 비롯한 음료와 그 곳의 다양한 문화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1천여권에 달하는 소장도서를 볼 수도 있고 세미나 등을 할 수도 있다. 3시간을 넘으면 30분에 500원의 발금이 있으며 담배도 1인당 2개비만 허용된다. 거기면 500원의 발금이 있다. 처음 찾는 사람과 5회 이용한 사람에게만 책 한권을 선물하기도 한다. 유흥가로 점점 변해가는 대학가에서 이런 문화 공간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조그만 기쁨인 동시에 안심도 된다.

전화: 392-6060

샌드위치 1,000원 주스 300 무료 500원 영도시간: 08:00 - 23:00

♣ 미술관에는 또다른 이유 - 자하령

요즘 미술관에 찾기가 있는 경우가 많다. 미술관을 찾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공간들은 미술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의외의 기쁨을 주기도 한다. 북악 스카이라이프 입구에 있는 부암동 자하령도 그렇다. 여러 기획전들이 열리기도 하고 도자기를 직접 팔기도 하는 크지 않은 화랑이지만 그 곳을 찾는 사람들은 많은 기쁨을 누리고 가게 된다. 경복궁에서 청운중학교를 지나 세검정으로 넘어가는 길에 우리나라 동사무소 중 가장 전망이 좋을 것 같은 부암동 동사무소 근처에 있다. 가까운 곳에 환기 미술관과 그 유명한 손만두집이 있다. 눈과 입과 마음이 모두 즐거워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가져보자.

전화: 3217-3238, 7743

전동차 4,000 - 6,000원 영도시간: 10:30 - 24:00

♣ 천년동안도

하얀 테이블보와 푸른 의자가 감미로운 음악과 섞여 어두운 실내에서 검푸른 빛을 자아내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 카페. 천년동안도. 그러나 한면이 통유리로 되어있어 낮시간에는 환할 정도. 매일 저녁 재즈와 블루스 라이브 공연이 펼쳐진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밤8:30-11:00까지 토요일에는 밤6:00-8:00, 9:00-11:30까지 공연이 있다. 이름마저 깊은 울림이 느껴지는 천년동안도는 대 학로(지하철4호선 혜화역 1.2번 출구) 중앙주차장 앞에 바로 있다.

전화: 743-5555

커피: 5,000원 저녁 7,000 - 8,000원 영도시간: 12:00 - 22:00

호주제 폐지로 평등한 가정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자!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 폐지운동본부

결혼한 여자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부계혈통주의는 지금도 '남근바위'를 숭상하는 남아선호사상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딸은 낳아봐야 시집가면 그만이고,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생각은 여아낙태와 심각한 성비불균형을 낳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차별당한 딸들은 결혼 후에도 명절과 제사 때마다 증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21세기를 앞두고 있는 한국사회는 아직도 가부장적인 가족질서와 남성의 성씨만을 우월하게 여기는 부계혈통주의로 인해 많은 여성들과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미혼여성의 40%가 결혼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정부의 공식 통계가 나왔겠습니까?

여성과 딸을 천시하는 가부장적 가족제도하에서는 남녀평등과 민주주의는 요원합니다. 21세기가 오기전에 가부장제의 유산인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평등한 가정, 차별없는 민주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일까요?

- 전남편의 아이를 데리고 재혼한 41세 주부입니다. 현재의 남편도 전남편의 아이를 예뻐하며 자신의 호적에 올리고 싶어 하지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상에는 전남편의 아이들이 동거인으로 올라 있습니다. 여자가기 때문에 친자식조차 호적에 올릴 수 없게 만드는 호주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 50세 된 주부입니다. 평생 돈 한푼 벌지 않던 남편이 외도로 낳은 아들을 호적에 올리겠다고 합니다. 딸만 둘을 둔 나로서는 남편의 결정에 반대했지만 호적법상 남편이 외도로 낳은 자식은 부인의 동의가 없어도 호적에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남편이 죽은 뒤 나와 내 딸들의 호주가 남편의 아들이 될 뿐더러 내가 평생 모은 재산도 똑같이 상속된다고 합니다. 호주제도가 나와 내 딸들의 행복을 빼앗아 갔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호주제도 입니까?

현행 호주제도가 당장 폐지되어야 하는 3가지 이유



◎ 현행 호주제도가 당장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1 호주제도는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면서 모계혈통은 부정하고, 여자는 호주가 될 수 없으므로 혈통을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겨 1년에 3만명에 달하는 여아낙태 및 심각한 성비불균형을 낳고 있습니다.
- 2 현행 호주제도는 아들(손자) - 미혼인 딸 - 처-어머니 순으로 승계순위를 정하고 있어 3살짜리 손자가 60이 넘은 할머니와 집안의 실질적 가장인 엄마의 호주가 되는 등 가족질서에 맞지 않을 뿐더러 이혼과 재혼 및 독신이 증가하면서 다양해진 가족형태에도 맞지 않는 시대 착오적인 제도입니다.
- 3 현행 호주제도는 90년 3차 민법 개정 이후 호주 상속이 호주 승계로 바뀌었고 심지어 호주 승계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호주제도는 이름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만이 호주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보장한다"는 헌법(제36조 1항)의 정신에 위배됨과 동시에 유엔여성차별철폐약 제 16조의 "가족 성씨 선택의 자유권"에도 위배되어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인 '부부공동대표제'를 만들시다

• 부부공동대표제란?

새로운 신분증명제도로 결혼한 부부와 그 미혼자녀로 구성된 2대의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기본 가족별 편제 방식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부인의 호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공동으로

한 가족의 공동대표로 함께 신분증명서에 기록하도록 합니다.(따라서 기재 순서도 남자 우선이 아니라 가나다순으로 합니다)

• 자녀의 성씨는 부부간에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합니다.

현재 자녀의 성씨는 아버지의 성을 아는 한에는 반드시 부계혈통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부부공동대표제는 자녀의 출생시 부부합의하에 부 또는 모의 성을 택하게 하고, 부모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모성을 함께 쓰는 방식을 채택하여 양계혈통을 동등하게 존중받도록 합니다.

• 이혼·재혼한 여성도 자신의 신분증명서에 자녀를 올릴 수 있습니다.

98년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3쌍이 결혼할 때 1쌍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여성들도 독립적으로 새로운 증명서를 만들게 되며 자녀를 자신의 신분증명서에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재혼한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분증명서에 자녀를 올릴 수 있도록 하되, 자녀의 성씨는 바꾸지 않고 본래의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호주제폐지운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서명용지는 법 개정 청원에 큰 힘이 됩니다.
- 국회·정부·정당·언론사 등에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보내 주십시오.
-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에 작은 정성을 모아주십시오.

후원계좌 : 한빛은행 064-182272-01-001 지은희(호주제폐지)

◎ 호주제 불만 및 피해 사례 신고를 받습니다.

- [서울]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747-2442 한국성폭력상담소 576-5513 한국여성민우회 737-5763
한국여성전화연합 2269-2962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529-6349 한국여성연구소 2273-6206
- [경기] 경기여성단체연합 0343-383-6808 새움터 0351-867-4655 안양여성회 0343-387-3050
- [대구경북]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053-254-0706 대구여성회 053-421-6758 함께하는 주부모임 053-425-7701
포항여성회 0562-275-7436
- [부산] 부산성폭력상담소 051-513-2475
- [전북] 전북여성단체연합 0652-287-3459
- [충북] 충북여성민우회 0431-263-8124

한(편)부모 가족 지원 상담실

☎ 02-739-8787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에서 운영중인 한부모가족 지원상담실은 한(편)부모가 죽이 겪는 자녀, 경제, 법률, 정신적인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기 위해 전용전화(8787)를 설치했고 수요에 따라 전문가들과의 면접상담을 연계합니다. 주변에 한(편)부모들을 알고 계시면 이와 같은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과 교통사고 그리고 이혼의 증가로 우리는 누구나 한(편)부모 가족이 될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한(편)부모가족을 결손가족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은 경제적인 문제, 자녀교육의 어려움, 호주제 등 법과 제도의 문제, 편부모를 위한 각종 정보의 부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고자 한(편)부모가족 지원상담실을 열었습니다.

전화 상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 오후 9시)

전문가 면접 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 9시)

월요 상담지원 전문가

법률·세무 (월주)	이종학 김기중(변호사) 이양자(세무사)
사회 복지 (월주)	신혜령(국립보건원 교수) 김영희(사회복지전문요원)
정신 건강 (월주)	최보문 남형자 이근덕 전지홍 황규혁(신경정신과 전문의)
자녀 교육 (월주)	오숙희(김포 가족과성상담소 소장) 김혜련(“남자의 결혼, 여자의 이혼”의 저자)

- 본 상담소에서는 월요일 한(편)부모교육을 운영하고 자조모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많은 한(편)부모들의 참여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

보육교사 현장연구 공모전

한국보육교사회는 보육교사의 연구·실천 작업을 지원, 격려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현장연구 공모사업을 실시합니다.
보육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교사들의 연구, 실천내용을 발굴하여 확산하고,
현장의 요구와 제안을 보육제도·정책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에 보육교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주최

한국보육교사회

• 모집대상

보육교사

• 공모부문

보육의 고유한 특성이 담긴 교사의 연구·실천 내용 (주제에 제한 없음)
보육교사 관련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 (자격제도, 재교육, 처우 등)

• 상 금

연구하는 교사상 : 상금 30만원(1명)

실천하는 교사상 : 상금 30만원(1명)

발전하는 보육상 : 상금 30만원(1명)

장려상 : 상금 10만원(약간 명)

• 응모 방법

신청 접수 : 한국보육교사회

접수 기간 : 1999년 9월-1999년 12월 15일까지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보육교사회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회의집3층

전화02-2275-8505 전송02-2275-8506

접수는 우편으로 하고 마감 당일 소인 유효함.

※ 심사결과는 1월 중 개별통보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된 작품의 저작권은 본회가 소유합니다.

※ 시상식 및 발표회는 2000년 본회 총회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육계 동향

장애 이동과 임마가 함께하는 방과후 교실

서울시 중부 여성발전센터는 정신지체 초등
학생 대상으로 장애아동과 엄마와 함께하는
방과후 교실을 처음으로 개설, 이달말부터 운
영한다. 학기중 매주 1회 2시간씩이며, 참가비
는 전액 무료, 엄마는 종이 집기를 배울 수 있
다. 희망자는 문의 후 방문 접수.

· 문의처 : 02-719-6307

지구촌 민속박물관 '공예품 한마당' 큰잔치

지구촌 민속박물관에서는 '우리 전통공예
한마당 큰잔치'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 중 '우
리 전통공예품 만들기(체험학습)'는 유아에서
청소년까지 혼자나 여럿이 공예품을 만들 수
있고 작품을 가져갈 수 있는 행사이다.

알공예, 가죽공예, 오색점토 공예, 도자기그
림 넣기 및 점토성형 체험, 물레성형체험, 종
이꽃 공예 등을 체험할 수 있다.

· 실습비 : 각 2천원

· 문의처 : 02-773-9590

한국영유아보육학회 '99추계 학술 대회

- 세천년 한국영유아보육의 방향 모색 -

기조강연

21세기아동보육의 방향

(김영모-중앙대 교수)

주제발표

영유아보육비용의 재정분담 구조 현황과 과제

(백선희 -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강사)

보육서비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달체계 모색

(허 선-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육시설 인증제 도입에 따른 평가 항목 개발

(이 옥-덕성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개방연구논문 발표 및 토론

· 유아교육기관의 통합교육을 위한 토론 학습
모형

· 아동보육을 위한 활동중심 통합교육과정의
접근

· 어린이들이 역할놀이 중에 사용하는 언어
전락

· 조선시대 회화에 나타난 아동특성

일시 : 11월 24~25일

장소 : 제주 KAL호텔(24일), 서귀포 KAL호
텔(25일)

참가비 : 55,000원~160,000원

문의처 : 0341-229-8268

유아놀이 창작연구회 11월 창작놀이 강습회

· 주제 : 가을의 변화, 우리가 사는 세계

· 내용 : 담화, 동화, 동요지도, 교육무용, 손유
회, 집중놀이, 폐품으로 만들기, 환경
구성 만들기, 모루 공예, 아동미술 교
육

· 일시 : 서울 11월 13일, 11월 18일

· 장소 : 유아놀이 연구회관
(왕십리역 7번 출구)

· 참가비 : 1만8천원

· 문의처 : 02-2292-3273

소식과 소식

보육교사 현장연구 공모전

• 9월 6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3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공동육아연구원, 서울YMCA, 유회정 여성개발원 연구원, 여성단체연합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 9월 7일 여성단체연합 3차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2000년 여성단체연합의 운동방향과 9, 10월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정희연 회장이 이사의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9월 8일 영유아보육법개정을 위한 4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방과후 보육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에 산입키로 하였습니다.

• 9월 15일 여성단체연합 8차 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개정안 검토와 여성복지인력을 위한 리더십 강화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복지위원의 자격으로 정희연 회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9월 15일 교사정책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 중 교사관련 부분을 마무리하고 잠정적으로 모임을 해소하였습니다.

• 9월 27일 영유아보육법개정을 위한 5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방과후 보육에 대한 내용 산입과 전체적 법안에 대한 세부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 9월 29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공동참여단체 실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공동육아연구

원,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보육교사회가 참석하였습니다. 10월 9일 영유아보육법개정을 위한 긴급공청회의 내용을 기획하였습니다.

• 10월 1일 영유아보육 정책토론회가 국회 행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등이 주최한 이 토론회에서는 영유아보육법개정의 필요성과 유아교육법 고찰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정희연 회장은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 영유아보육법개정에 관한 긴급공청회

10월9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공동육아원, 부스러기 선교회, 서울YMCA, 참여연대,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공동주최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관한 긴급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허선교수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의 개정법안 설명에 이어 김재인(한국여성개발원 교육연구부장), 김홍신(한나라당 의원), 박정혜(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회장), 정희연(본회 회장), 정병호(공동육아연구원 원장), 신종원(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 부장) 등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날 보육관련 단체의 장, 시설장, 학계, 보육교사, 교육원생 등 약 400여명이 모여 영유아보육법이 아동중심의 관점에서, 보육의 공공성, 아동보육료의 확대, 방과후 보육에 대한 법적 근거의 재정비 등 개정법안의 취지 등을 공유하며 함께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소식과 소식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Dignity of the Small Child'에 본회 회원 6명 참가

10월 9일부터 10월 13일에 걸쳐 스위스 도르나에서 열린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Dignity of the Small Child'에 본회 회원 6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국제발도르프킨더가르텐연합의 초청으로 본회가 선발한 김경혜회원과 김진숙회원 그리고 관심있는 4명의 회원이 윤선영선생님과 함께 참가하였는데 고마운 것은, 지난 봄 특수보육프로그램운영교육 때 강사로 오셨던 Gisela Braune선생님이 이번에 함께 참가한 한국교사들을 위해 특별히 독일의 킨더가르텐과 영아보육시설 견학을 주선해주신데다가 독일의 가정집에서 며칠간 머무를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습니다. 우리 회원들에게 강의와 워크숍 내용을 통역해주시고 인솔해주신 윤선영선생님, Gisela Braune선생님, 본회 회원들을 초청해준 국제발도르프킨더가르텐연합측에 감사드립니다.

• 현장연구소모임

그룹작업운영자모임이 현장연구소모임으로 전환되어 지난 9월 4일 첫모임을 가진 이래 3번에 걸쳐 모임을 가졌습니다. 문제행동의 유형과 사례, 산만한 아이, 공격적인 아이, 소극적인 아이에 대해 연구일기를 작성, 토론하였으며 다음 모임에서는 문제행동에 관한 부모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 10월 12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사무처장과 정희연 회장은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과 이성재 국민회의 의원 보좌관을 면담하고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관한 법안을 전달하고 개정의 필요성을 공유하였습니다.

• 10월 13일 보건복지부 회의실에서 보육전문가회의가 열렸습니다. 정희연 회장을 비롯한 보육관계전문가 15인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보육사업장기발전계획, 보육정보센터 활성화 방안, 2000년 보육예산(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 경기도지부 건설을 위한추진위 1차회의

10월 13일 경기도지부건설 추진위 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수원의 이주영, 이기원, 부천의 박부자, 임미란, 안산의 고영미,김실이 선생님이 추진위원이며 이날 진행된 안건은 각 지회의 상황, 회원 동향에 대한 공유와 경기도지부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 10월 25일 여성단체연합 3차실무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10, 11월 사업계획 심의, 2000년 3.8여성대회 방향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희연 회장은 회계의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10월 25일 영유아보육법개정을 위한 공동주최단체 집행책임자 2차회의가 열렸습니다. 공동육아연구원, 서울YMCA,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육아협동조합협의회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그간의 경과보고와 법안제안단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및 이후 행동방향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소식과 소식

• 5차 조직위원회

10월 26일 여연 5차 조직위원회가 있었으며 본회에서는 이경녀 조직부장이 참가했습니다. 이 날 논의된 안건은 권역별 수련회 평가와 여성운동의 지역화에 대한 논의, 한국보육교사회의 조직강화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 등이 있었습니다.

• 5차 정기이사회

10월 30일 오후1시에 본회 5차 정기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영유아보육법개정활동 과정 공유와 이견개진이 있었으며 교육부 w.s와 조직부의 차세대 훈련과 중견회원과의 만남에 대한 논의, 법인 추진을 위한 정관 작업중 본회의 목적, 회원체계, 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이사회를 99년 마지막 이사회로 하며 이후 총회준비위와 수련회준비위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올 한해 동안 지부, 지회를 책임지고 열심히 활동하신 이사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 10월 30일 보건사회연구원 회의실에서 '가정 보육시설 질관리 방안과 보육교사 질관리 방안'에 관한 자문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 정희연 회장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발도르프교육 학습·연구소모임 시작

스위스 도르나에서 열린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Dignity of the Small Child'에 참석한 회원들과 윤선영선생님, 그리고 발도르프교육에 관심있는 회원들이 모여 학습·연

구 모임을 시작합니다. 11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이 모임은 월 1회 토요일에 정기모임을 가질 예정이고 회원에 한해 참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국으로 문의하십시오.

• 99한국보육교사회 신입회원 교육자료집

여러 회원들의 조언과 도움으로 신입회원 교육자료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신입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내용과 보육 현장에 꼭 필요한 여러 정보들이 알차게 들어 있습니다. 자료집이 필요한 분은 본회로 연락바랍니다.

• 천리안 동호회 '보육교사한마당'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천리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daycare'만 치면 보육교사한마당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부소식

인천지부

• 박물관 소모임을 소개합니다

99년 4월에 처음 소모임을 시작으로 현재는 성원이 9명, 김미현 선생님이 소모임 장입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박물관 교육에 앞서 교사 먼저 박물관에 대한 지식을 열어보자는 목적으로 매월1회 현운애 강사를 모시고 박물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박물관을 네차례 방문해 부분별로 견학을 했으며 간송미술관의 전시회를 봄-금강산 그림전시회, 가을-조선말기 회화전(나무와 동물들)-주제별

소식과 소식

로 다녀왔고, 공주박물관과 인천시립박물관을 견학했습니다. 앞으로는 참소리박물관, 남산과학관, 삼성교통박물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서울지부

• 정기 교육 "현장교사가 준비한 부모상담 실제"

내용 : 영아부모상담 - 배변훈련, 첫병폐기
3.4세 부모 상담 - 다름, 상처났을 때
5.6세 부모 상담 - 문자 교육, 수교육을 중심으로 실제와 이론을 듣고 토론을 합니다.

일시 : 1999년 11월 13일 오후 4시

장소 : 여성평화의 집 강당

(한국보육교사회 사무실 지하)

회비 : 회원 무료, 비회원 약간의 참가비

문의처 : 2275-8505

남부지부

교육강좌 '영아에게 들려주는 전래노래배우기'가 10월30일 오후4시 송실대에서 남부주최로 있었습니다. 수도권 여름연수의 후속작업으로 문재현 선생님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북부지부

• 9월중 어린이집 안전교육(소방 훈련)에 대한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 옛이야기 소모임에서는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 바깥나들이 소모임에서는 4월 토론회 이후 1년의 나들이 활동을 정리하고 자료로 묶어 내기 위한 작업에 들어갑니다.

• 북부지부 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11월 27-28일에 걸쳐 우이동 삼정장에서 발도르프

세미나 참가 보고, 총회, 인간관계훈련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윤은주 선생님이 활동하고 계시는 상계어린이학교의 겨울나기 일일주정이 11월 21일 명륜동 상대앞에서 있습니다.

부산지부

• 9/2영유아보육법 개정초인에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 9월9일 부산보육교사회 5년차 이상 회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 9월 30일 '유아체조'를 주제로 교사재교육이 있었습니다.

광주·전남지부

• 10월 첫주부터 3회에 걸쳐 신입회원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들

결혼을 축하합니다

• 서울 서부지부의 진경선 선생님이 11월 21일에 결혼을 하십니다. 결혼 후에는 포항에서 신혼을 시작하신다니 조금 아쉽기도 하네요.

• 서울 북부, 동근나라의 김금옥 선생님이 12월 26일에 창원에서 결혼하십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운명적인 사연이 있더군요. 기쁜 만남을 정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 드디어 보육교사회에서도 사진 작가가 탄생

소식과 소식

했습니다. 부산의 한혜정 선생님이 11월 24일 ~27일까지 부산일보사 부일갤러리에서 사진 전시회를 갖습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사진 작가가 되어 전시회를 갖는 선생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서울의 김연숙 선생님이 9월에 예쁜 딸을 출산하셨습니다. 엄마, 아빠 얼굴이 길어서 걱정이었는데 다행히스럽게도 아기(나현)의 얼굴은 동글동글하답니다. 나현이가 앞으로 자랑스런 보육교사의 딸(?)로서 더욱 튼튼하고 밝게 자라기를 기원합니다.

• 인천의 최화영 선생님이 예쁜 딸을 9월에 출산하셨습니다. 출산하기 얼마전까지도 계속 인천보육교사회 회장으로 여기저기 무거운 몸으로 모임에 참석하셔서 조금 걱정이었는데 건강한 딸 아이를 낳았더니 기쁘고 정말 정말 축하드려요.

• 우리 아이들의 나라 우리어린이집의 일일 주점이 목표액을 달성하며 무사히 끝났습니다.

휴직합니다.

• 서울 북부의 서미연 선생님이 건강한 아기의 출산을 위해 일찌감치 휴직에 들어가셨습니다.

• 수원 생각하는 어린이집이 폐원하면서 감영신 선생님이 휴직에 들어가셨습니다. 모처럼의 휴가를 얻어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신다는 소식이 들리는군요. 영신 선생님, 쉬는 동안 하고 싶은 일들 많이 찾아 다니세요.

• 햇살 어린이집의 박지혜라 선생님이 잠시 동안 어린이집 활동을 쉬기로 하셨습니다.

잘 쉬고 힘찬 모습으로 돌아오시기를 기대합니다.

환영합니다.

서울 북부에 상봉 셋별 어린이집과 면목1동 어린이집의 선생님들께서 신입회원으로 가입 하셨습니다.

회비를 내셨습니다.(9월 10일-11월 3일)

〈서울지부-북부지회〉 9월 완납

〈서울지부-남부지회〉 9월 완납

〈서울지부-서부지회〉 8월 완납

〈인천지부〉 5-9월 완납

〈경기-기타〉 유필녀9월 고영미5-8월

〈광주지부〉 7월 완납

〈부산지부〉 8월 완납

〈기타〉 서은희10월-12월 이은애4-5월 심선경6-7월 이경녀5-8월

〈자료회비〉

송미연, 여경수, 김선경, 김옥, 정외숙

〈후원해주셨습니다〉

김동주10만원, 김희재10만원, 김난희1만원

소식과 소식

본회 9·10월 활동일지

- 9월 15 교사정책단
- 18 현장연구소모임
- 21 유아교육법인에 대한 교육정책 포럼 확대집행위
- 29 보육인 한마당

- 10월 1 영유아보육 정책 토론회
- 2 현장연구모임
- 6 집행위
- 9 미술연구소모임
-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관한 긴급공청회
- 12 집행위
- 13 중앙보육위원회
- 14 경기도지부추진위1차
- 15 여연 복지위원회
- 20 확대 집행위
- 23 현장연구소모임
- 27 확대 집행위
- 30 5차 정기이사회





편 집 부 에 서

거물이 조금 더 잡지 못하고 조바심이 나는지 요즘 부쩍 바람이 쌀쌀합니다.

보육교사회에서 일하는 것에 저는 아직도 적응 중인데 어느새 올해 마지막 회지를 맞았고 2000년이 되어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어찌 기분이 이상해지네요. 그간 어쩔분 편집자의 실수를 용케 안내하며 계속 구독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더욱 여러분께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1년동안 바쁜 활동 속에서도 믿고 보내 주신 우리 회원들과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명합니다

지난 99년 9/10일호에 실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하여' 중 8page에 실린 '보육교사4급'을 '방과후 지도교사'로 정명합니다.

본금주 선생님의 결혼일이 10월 16일에서 10월 10일로 정명합니다. 금주 선생님! 죄송합니다.

읽고 보내주세요

여름호부터 이색적인 낫집이나 좋은 글씨, 주위에 권하고 싶은 책 등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평소 여기저기 다니다가 눈에 띄는 곳이나 혼자 읽고 있기에 너무너무 아까운 글, 책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읽고 보내주세요.

어린이 권리선언문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든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떻든간에, 남자이든 여자인지,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브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는 이 선언문에 적혀 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지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아로 취급받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인정받는다라는 것이다.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구공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논다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이고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폭력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귀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없이 어린이 스스로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지낼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옷버릴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보, 어디서 얻습니까?”

● 정보 제공

PC통신에 '어린이집, 놀이방 정보'를 제공하여 보육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시설 홍보

현재 전국의 5천여개 어린이집, 놀이방이 PC통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어 보내주시면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에 광고해 드립니다.

● 교사 알선

교사를 구하려는 시설과 보육사업에 함께 하실 예비 교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로 직접 신청하거나 PC통신을 이용하여 원하는 분들을 만나십시오.

● 연구 개발

보육사업의 전문 영역 연구와 정보개발을 통해 더 나은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정책 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 교사 교육

다양한 교육내용을 연구 개발하여 교사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높여 나가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 놀이방 정보이용

천리안 GO BABY

하이텔 GO BEBO

유니텔 GO BEBO



● 한국보육정보연구소 회원이 되시면

-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연구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 개최하는 교육강좌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보육시설 출강 연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Korea Daycare Information and Research Center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TEL. 02)268-3954 FAX. 02)271-1548 ID KDIRC(천리안)